



‘푸른 보석’ 청라 금융 중심지로 빛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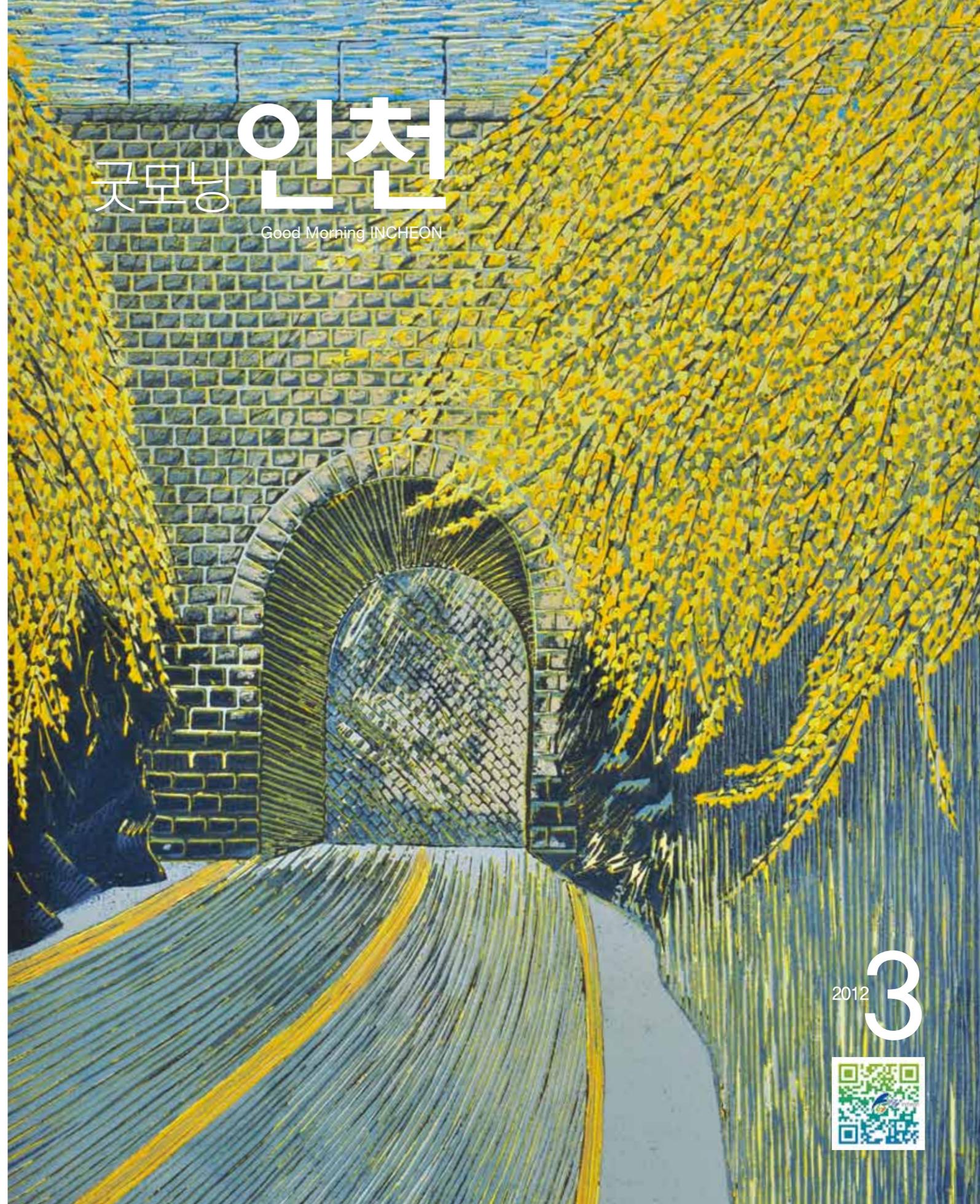


2016년 청라국제도시에 하나금융타운 조성
글로벌 경영의 핵심 전략기지로 부상

2016년 청라국제도시에 금융타운이 우뚝 섭니다.
인천광역시와 하나금융은 청라국제도시에 하나금융타운을 건립기로 합의했습니다.
푸른 보석, 청라국제도시가 이제 글로벌 경영의 핵심 전략기지로 부상합니다.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2년 3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허종식(대변인)
편집장 유동현(미디어팀장) twitter.com/inhappyou
취재 편집위원 이윤남 twitter.com/youna1488
 편집위원 정경숙 twitter.com/bluelou7
 편집위원 김윤경 twitter.com/ice3333
사진 김보섭 · 김성환 · 홍승훈(자유사진가)
 심영보 · 하장원(시 대변인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디자인 & 인쇄 성광디자인(주) T. 032.881.9441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과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T.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의 못 다한 이야기 동영상으로 보세요.

(굿모닝인천)이 2월호부터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페이지 상단의 QR코드를 찍으세요. 관련 기사의 취재영상이 펼쳐집니다. ※ 테블릿 PC를 통한 서비스는 추후 제공할 예정입니다.



26



34

20



06



10



16



36

06 포커스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땀 한방울도 포착' 고화질 HD급 축구장이 온다

김남일, 설기현 선수와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는 축구장.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까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축구장이 인천에 탄생한다. 3월 11일 개장기념으로 수원과 첫 K리그 홈경기를 치른다.

10 Green incheon / 초록공간 겨울 훌훌 털고, 봄 흠뻑 맞다

3월, 햇빛이 쬐어 하루하루 나뭇잎의 농도가 섬세하게 변해간다. 겨울의 여운은 훌훌 털고, 초록빛 세상에서 봄 기운을 흠뻑 빨아들이자.

20 Zoom In / 인천의 특목고 우수학생, 인천 명문고로 모인다

인천의 학력향상을 위한 몸부림이 뜨겁다. 우리시는 '현모인친(賢母仁遷)' 전략 하에 학력향상 선도학교, 잠재성장학교 등을 선정, 학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력있는 교육기반을 쌓고 있다.

Contents

- 04 **Communication** 소통과 화합
- 06 **포커스** 인천축구전용경기장
- 10 **Green Incheon** 초록공간
- 16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한국뉴욕주립대 개교
- 20 **Zoom In** 인천의 특목고
- 24 **Incheon 3·1** 독립운동과 인천
- 26 **그 시간이 흐른 이공간** 강화북덕방
- 30 **시정토크 앱**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
- 34 **Culture News** 커피콘서트 I 외
- 36 **아름다운 사람 I** 인천인 마무드 슈크카니
- 38 **아름다운 사람 II** 버려진 개들의 수호천사 정은화

- 40 **별난 물건, 별난 역사** 운동기구
- 42 **Civic News** "쌍둥이가 복덩이예요" 외
- 46 **Council News** '영상문화산업도시 인천...'토론회 외
- 48 **만화** 마음까지 소통합니다
- 49 **한방칼럼** 골반교정
- 50 **Infobox** 2012년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개최 외
- 55 **리크루트** 인천 고용정보
- 56 **함께 인천**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
- 57 **인천사는 이야기** 파이팅! 인천유나이티드 외
- 58 **모닝커피 한잔** 손인영 인천시립무용단 예술감독
- 59 **인천풍경 플러스** 만선, 이 손 끝에 있소이다



Cover Story
 불이 무르익었다.
 개나리가 노랗게 흥예문(인천유형문화재 제 49호)을 도배했다.
 여유롭게 이 봄을 누리길 바라며 목판소멸기법으로 표현했다.
 판화 · 김경배 작



인천과 통(通)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손을 마주잡고 눈빛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천시 대표 미디어와 SNS에서 우리 만나요.

인천시 미디어

-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 소셜웹** (social.incheon.go.kr)
- 블로그** (blog.naver.com/flyic)
-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천에 대한 생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032-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굿모닝인천>을 동영상으로 보다니!

<굿모닝인천>이 동영상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더군요. 와우~ 아주 멋집니다. 저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았는데,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친구들에게도 보여주며 뿌듯했어요. 기사도 좋고, 늘 새롭게 발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 콘텐츠는 앞서가는 데 디자인은 그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세련되고 읽기에도 편했는데,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해주세요.

_ 김은수 부평구 부영로

내 나이 66세,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봉사하고 싶어

2014년 인천에서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려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굿모닝인천>에서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해 꾸준히 좋은 정보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봉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66세이지만 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서 중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바랍니다. 파이팅!

_ 진용숙 남구 인하로

'무상보육, 일자리 창출' 적극 환영합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한 해 한 해 살기 너무 팍팍하고 힘듭니다. 그런 와중에 인천시가 일자리 창출과 무상보육 등의 정책으로 시민의 시름을 덜어주어 고마운 마음입니다. 대기업 유치로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무상보육으로 부모들이 부담을 덜고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키웠으면 하고 바랍니다. 시의 정책이 시민을 항상 웃음 짓게 하길 기대합니다.

_ 정은숙 남구 주안서로

꼭 가보고 싶은 매력도시 인천

역사가 깊고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도시 인천. 멀리 있지만 언젠가 꼭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 언론매체와 <굿모닝인천>을 통해서 인천을 만나며 인천의 매력에 꼭 빠졌습니다. 인천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에도 널리 알릴 가치가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굿모닝인천>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세계에 인천을 널리 알려주길 바랍니다.

_ 박현정 경남 양산시

'이색 길거리음식' 흥미로웠어요

<굿모닝인천> 2월호에서 '이색 길거리음식'을 재미있게 읽어보았습니다. 인천 곳곳에 있는 길거리 음식을 알게 되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청량산 기슭 인천시립박물관 근처에서 파는 토스트, 꼭 한번 먹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시민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으로 인천을 많이 홍보해주세요. 시민으로서 인천에 대한 애정이 새록새록 생깁니다.

_ 김성철 서구 신석로

신포동이 과거의 영광을 다시 누리길

50대 시민입니다. <굿모닝인천> 2월호 기사 가운데 '신포동, 명동 흥대 못지않은 문화지대로'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우리 인천을 사랑하며 발전시키려는 모습이 기특하고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처럼 신포동이 다시 활기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_ 이경철 부평구 세월천로

시민에 다가가는 정책홍보 기대

<굿모닝인천> '인천시 주요 성과와 비전' 기사를 인천에 사는 시민으로서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정책과 주요 사업을 많이 소개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이 궁금해 하는 영유아 지원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또 제언한다면, 시정에 대한 성과보다는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좋겠어요. 늘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세요.

_ 오정희 서구 라임로

'찾아오는 교육도시' 인천에 공감

시민과 대담을 나누는 '시정토크 앱' 기사가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학력향상학교라는 주제도 와 닿았고요. 평소 타 시도의 특목고로 우리시의 상위권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럴 때 시에서 학력향상선도학교를 운영하니 매우 반갑습니다. 인천의 좋은 학생들이 그 안에서 공부하고 꿈을 키워서 인천의 미래를 밝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천이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에서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도시'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_ 김진이 남동구 소래역로

Bulloger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Bulloger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자라난 청년입니다. 인천은 지금 분명 희망적으로 발전하고 있지요?

'대한민국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비전으로 선정, 3대 핵심사업인 Job-care(스마트 청년취업), Edu-care(공평한 기회와 경쟁력 있는 교육), Child-care(무상보육 실현)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교육과 따뜻한 복지를 통한 찾아오는 인천조성'을 역점시책으로 시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인턴 프로그램, 장학생 선발, 직업훈련사업, 청소년 국제교류 등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Bulloger 전국 최초 만 4세 무상교육은 엄마 입장에서 환영하지만, 장기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더욱 늘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저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양육비 부담입니다. 따라서 양육의 사회화를 통해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우리시에서는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만4세를 대상으로 시행,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내년부터 만3~4세 아동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취학아동이 점차 감소함에 따른 교육재정의 여유분을 활용해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추진합니다.

@Bulloger 안녕하세요. 시장님 팬입니다. 그런데 인천대 부근 도화3동은 어제쯤 개발될까요? 주변이 삭막해요.

도화구역은 행정타운(제물포스마트타운 포함), 청운대학교, 시립미술관 건립계획이 확정돼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 공사도 작년 하반기에 착수해 금년 말 완료목표로 본격적으로 철거작업을 추진합니다. 앵커시설 조성 및 철거작업을 금년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구도심 균형발전과 침체된 도화동 일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름 정창근(당시 만 40세, 남)
발생일자 2005년 12월 27일(화)
발생장소 남구 주안동
신체특징 정실질환, 간질환, 우측 다리를 절음
제보처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www.missingchild.or.kr



‘땀 한방울도 포착’ 고화질 HD급 축구장이 온다

공을 넣은 김남일, 설기현 선수와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는 축구장. 공을 향해 질주하는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 땀, 선수들끼리 부딪치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박진감 넘치는 축구장이 인천에 탄생한다. 인천시민과 희노애락을 함께한 송의운동장이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유럽식 축구전용구장으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은 인천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의 홈구장으로 사용하며, 3월 11일 개장기념으로 수원과 첫 K리그 홈경기를 치른다.

글. 이용남_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송의운동장 리뉴얼은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축구전용구장과 도원역을 입체적으로 연결해 운동장 부지에 주상복합, 대형마트 등이 들어서고 주거, 상업, 업무, 체육, 여가가 한데 어우러진 웰빙복합 타운인 송의아레나파크로 조성한다.

‘선수 숨소리가 들린다’ 생동감 넘치는 경기장

송의운동장은 윗터골운동장에 인천중학교가 들어서면서 1934년 도원동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후 다들 ‘도원야구장’ 혹은 ‘그라운드’이라 불렀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은 오직 K리그와 인천유나이티드를 위한 경기장이다. 관중석 의자 색 깔도 인천의 유니폼 색인 파랑색을 기본으로 하고, 검정색과 노란색으로 수놓았다. 동쪽 관중석에는 의자에 ‘인천유나이티드(Incheon United)’라는 인천구단 영문이름을 새겨넣어 인천 팬들의 자부심을 높였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은 축구경기를 가장 다이내믹하게 즐길 수 있는 경기장이다. 그라운드 터치라인에서 관중석까지 거리를 최소한으로 줄여 축구경기를 가장 생동감있고 역동적으로 볼 수 있다. 선수들이 코너킥을 칠 때 손으로 잡아도 잡힐 정도로 그라운드와 관중석은 손이 닿을 정도로 가깝다. 골을 넣은 선수와 팬들이 하이파이브를 하며 골 세리머니가 가능하다.

관중석과 그라운드가 가깝다 보니 그라운드를 뛰는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 선수들끼리 부딪치는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다. 국내의 다른 어떤 구장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관중과의 거리를 좁혔다.

배의 이미지 형상화, 첨단 설계

1천1백억원을 투입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은 인천의 도약을 상징하며 출항하는 역동적이면서도 유연한 유람선의 이미지를 형상화했고, 피파 규격의 국제적인 수준의 구장으로 설계했다.

관중석은 2만3백석 규모로 다른 피파 규격의 구장보다는 작지만 아담하

고 짜임새있고, 관중과 호흡하며 함께 느끼는 구장으로 설계됐다. 관람석 규모는 국내 축구수요를 고려해 정했다. 특히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은 프로축구 경기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는 문화 복합단지로 시민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한다.

북측 2층 스탠드는 잔디를 깔아 피크닉석을 두어 경기가 없을 경우 인천시민에 공개, 다양한 이벤트 행사와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시민들의 휴게 및 만남의 광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광판을 동측 관중석 왼쪽과 서측 관중석 오른쪽 등 두곳에 설치했다. 전광판을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 향후에 증축 경우를 대비했고, 경기장 구조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은 국내 최초로 그라운드 밑 부분에 지하주차장을 두었고, 전체 주차면수는 지하와 지상을 포함해 1천 4백 46대다. 다른 구장과 달리 특이한 시설은 경기장 코너에 커플석을 설치했다. 커플석은 가족이나 연인이 나란히 앉아 축구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의자를 나란히 했고, 그 앞에 테이블을 놓았다. 커플석은 148석이다. 또 경기장 내 레스토랑 두 곳을 운영, 시민의 편의를 높였다.

경기장은 빛과 바람을 이용한 친환경 경기장으로 설계했다. 청정성, 환경성을 우선 시 했고, 배의 선미에 해당하는 북쪽부분은 바람이 불어 나갈 수 있도록 구조건물을 오픈해 설계한 것도 독특하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은 교통여건도 편리하게 고려했다. 경인전철 1호선 도원역과 5분 거리에 인접해 있고, 지하터널로도 ‘축구구장’ 북측 관중석으로 연결해 눈이나 비에 상관없이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다.

K리그 미래, 인천유나이티드FC 전용구장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은 시민구단 인천유나이티드의 홈구장이다. 최첨단 시스템과 관중 위주 편의시설을 갖추고 K리그의 위상을 높이게 된다. 축구전용구장의 탄생으로 제일 먼저 환호하는 사람들은 인천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이다. 다른 구단 팬들도 인천으로 원정응원을 오게되면 유럽에서나 볼 수 있는 스타일의 전용구장에 환호할 것으로 보인다.

전용구장을 갖게 된 인천유나이티드는 명문구단으로 도약의 디딤돌을 마련함에 따라 K리그에서 화려한 돌풍이 기대된다.



미리보는 송의역사관
운동장 90년 역사를 한자리에

인천체육의 산실로, 인천시민의 마음을 스포츠로 하나되게 했던 송의종합운동장. 3년간의 공사를 끝내고 유럽식 축구전용 구장으로 다시 태어난다. 송의역사관은 도시재생사업 이전 구도심에 대한 기록과 보존, 종합운동장 시설 변천, 시민과의 교감 기록, 근대체육발상지인 인천의 체육사 재정립,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치와 도시재생사업의 미래 비전을 담는다.

송의역사관은 송의종합운동장의 90여 년의 역사를 연대적으로 보여준다. 1920, 1964, 2008, 2011년존으로 나누어 각 시대별 다양한 영상과 역사자료가 전시된다. 먼저 ‘그라보이’가 나와 운동장과 인천시민이 나누는 교감의 역사를 영상으로 보여주고, 1920년존에서는 우리나라 근대체육의 발상지로 항일 운동장이었던 송의운동장의 역사를 자료로 보여준다. 또 한국 야구1번지로 수많은 사람들을 울고, 웃게했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1964년존에서는 전국체전 개최를 시작으로 체전때마다 새롭게 탈바꿈하며 성장을 거듭한 운동장의 다양한 변천 모습은 물론 인천시민과 희노애락을 함께한 경기와 선수에 대한 추억을 되살리는 코너다.

2008년존에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운동장은 사라졌지만 역사의 흔적을 갖고 있는 소중한 철거물을 갤러리에 전시하고 사라진 운동장의 역사를 시민 인터뷰를 통해 느끼고 소회한다.

2011년존에서는 낡은 운동장에서 새로운 도시로 변신한 아레나파크 재생과정, 인천시민의 흥심으로 아레나파크를 누빌 인천유나이티드 FC의 활약상 소개, 송의축구전용 구장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발전을 보여준다. 역사관은 오는 3월 공사를 시작해 6월 말 오픈 한다는 계획이다.





3월, 봄이 스리슬쩍 다가왔다.

야멸치게 불던 바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살랑거리고 햇살은 길고 따사롭다.

길었던 겨울의 여운은 훌훌 털고, 초록빛 세상에서 이 봄을 온전히 느껴본다.

나비가 나는 세상에서 꾸는 단잠 인천나비공원

햇살 아래 눈부시게 질푸른 숲, 그 안에 나비가 하늘하늘 날갯짓을 한다. '인천나비공원'은 부평구 청천동 장수산 일대 50만㎡에 푸르게 펼쳐진 생태숲. 부평역에서 15분 정도 차를 타고 달리면 숲에 이른다.

공원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은 작은 텃밭에 옥수수, 수수, 고구마, 콩 등이 자라는 흙의 정원이다. 보드라운 흙 위를 거닐고 식물을 매만지면,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자연의 싱그러움 감촉이 전해진다. 들꽃동산에는 야생화가 만발하다. 꽃들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잔잔한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붙잡는다. 동그란 이글루 모양의 나비생태관에 들어서면 나비가 사는 세상이 꿈결처럼 펼쳐진다. 하늘을 훨훨 날다가 꽃 위에서 잠시 쉬고 있는 나비. 까치발로 살금살금 다가서 바라보고 있으려니 야속하게도 하늘높이 솟아버린다. 자연교육센터는 아이들에게 숲과 그 안에

사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공간이다. 숲에 관련한 교육을 듣고 살아있는 곤충과 만나며 자연과 호흡할 수 있다.

Tip 야외 생태숲은 언제나 자유롭게 찾을 수 있으며, 실내시설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월요일은 휴관한다. 입장료는 무료다.
인천나비공원 ☎509-8820, www.icbutterflypark.or.kr

제주에서 맞는 이 봄, 국립생물자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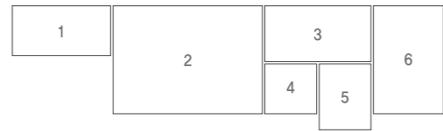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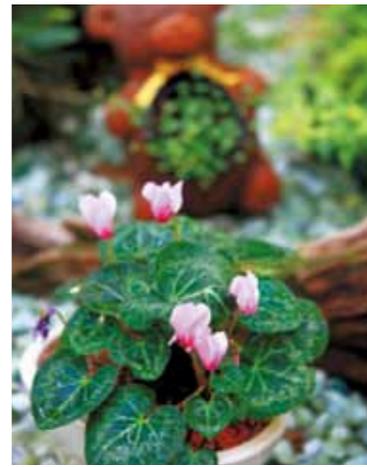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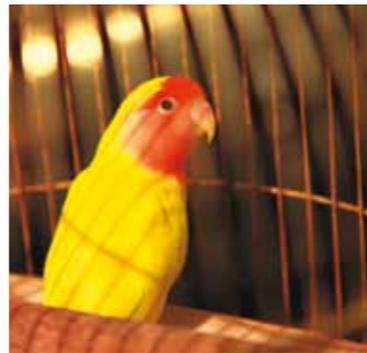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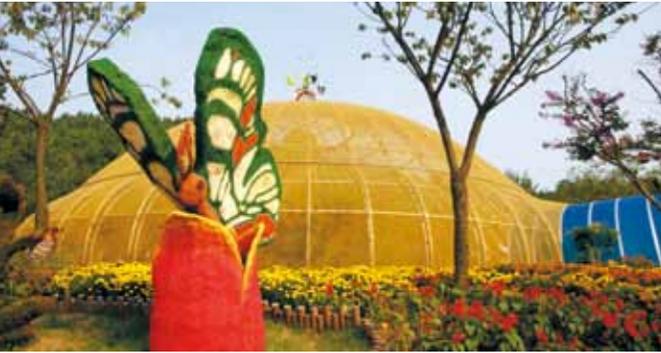
장수하늘소, 금개구리, 저어새, 뽕부기... 한때 뒷동산 푸른 숲에 살고 파란 하늘을 날았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다. 이 땅에 사는 고유 자생생물을 모아 소중히 간직해 놓은 곳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뿐인 자생생물전문 전시관 '국립생물자원관'이다.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은 한반도의 생물자원을 연구, 보전하고 있다. 그 수가 무려 985종 4천600여 점에 이른다. 자원관은 전시실을 비롯해 꽃자왈생태관,

겨울 훌훌 털고, 흙뻑 맞다

3월, 햇빛이 쌓여 하루하루 나뭇잎의 농도가 섬세하게 변해간다.
겨울의 여운은 훌훌 털고, 초록빛 세상에서 봄 기운을 흙뻑 빨아들이자.

글. 정경숙_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 1 인천나비공원
- 2 청라생태공원
- 3 드림파크 온실
- 4, 5 원예치유정원
- 6 국립생물자원관

체험학습실, 기획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숲과 하천, 바다, 등 생태계를 재현해 자연의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꽃자왈생태관에 들어서면 공간을 뛰어넘어 제주도 산 중턱에 와 있는 듯하다. 꽃자왈이란 화산암이 많은 제주도 한라산 중턱의 지형을 가리키는 말. 유리돔 안에는 개가시나무, 굴거리나무, 녹나무 등 제주도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저마다 초록빛 싱그러운 기운을 내뿜고 있다. 푸른 숲을 눈에 담고 청아한 물줄기 소리를 귀에 담으며 이 봄을 온전히 느껴본다.

Tip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 국립생물자원관 ☎590-7000, www.nibr.go.kr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몽실몽실 청라생태공원

청라사업소는 푸른 바다를 곁에 두고 생태공원을 품고 있어 봄철 나들이 장소로 그만이다. 여기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소각하고 자원화하여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곳.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잘 꾸며져 있어 입소문을 타고 '즐거찾기'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곳에는 천연잔디가 깔린 축구장을 비롯해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조깅트랙 등의 체육시설이 잘 꾸며져 있다. 또 8천㎡에 이르는 갯들에 튜립, 코스모스 등이 철마다 피고 지며 자생식물원에는 야생화와 곡식, 채소가 싱싱 자란다. 여기는 안과 밖이 모두 초록빛 천지다. 온실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열로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1천340㎡ 규모에 난원, 열대원, 제주원으로 꾸며진 이 곳은, 두 개의 온실을 이어붙인 형태로 중간에 쉼터가 있어 여유롭게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난원의 문을 열고 들어서니, 군자란, 문주란, 한란 등 20여 종의 동·서양란이 뿜어내는 향이 청아하게 피어오른다. 열대원에는 휘닉스 야자, 크로톤, 익소라 등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식물들이 질푸르게 자라고 있다. 마지막 제주원에서는 제주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아리따운 자태를 뽐낸다. 한편에는 옹기종기 모인 동물모양 토피어리가 눈인사를 한다.

Tip 온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청라사업소에서는 또 헌책을 화분으로 바꾸고 소각시설을 견학하는 '꽃이랑 책이랑', 아이들이 참여하는 '환경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 행사가 열린다. 청라사업소 ☎899-0400

젯빛 마음 초록으로 물들이는 원예치유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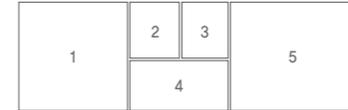
굳이 야외로 나가야만 완전한 봄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평구 십정동 한가운데 있는 인천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원예치유정원이 있다. 삶에 한 줄기 여유를 비추듯, 갑갑한 빌딩 숲 속에서 만나는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는 더 반갑다. 온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생각보다 잘 가꿔진 비밀정원에 깜짝 놀라게 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도심의 텃밭함과는 달리 숨통을 확 트듯 상쾌함, 공기부터 다르다. 아나나 다름가 정원에는 드라세나, 아글라오네마, 아이비, 디펜바키아와 같은 공기정화식물 20여 종이 자라고 있다. 또 야자나무, 바나나 나무 등 열대식물과 다육식물, 선인장류 30여 종이 잘 가꿔져 있어 보는 즐거움을 더한다. 이 곳은 원예치유정원이라는 이름 그대로, 식물로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스려 준다. 동네 주민들은 마치 친구네 집 정원을 들리듯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식물을 감상하고 차 한잔 즐기곤 한다. 집에서 식물을 키우면서 생긴 궁금증을 전문가와 상담하기도 한다. 발걸음을 더해 옥상에 오르면, 토마토, 고추, 상추 등이 자라는

작은 텃밭이 꾸며져 있다. 이곳에서 재배한 작물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한다고 하니, 보는 마음이 더 풍요롭다.

Tip 온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그린텃밭을 조성하는 어린이농부교실과 시민대상 생활원에 강좌 및 원예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농업기술센터 ☎427-5959, agro.incheon.go.kr

쓰레기, 향기로운 꽃으로 피다 드림파크

봄이 오면 수도권매립지의 드림파크는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핀 꽃 천국이 된다. 저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있는 꽃들을 보노라면, 과거 이 곳이 연탄재 야적장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야생초화원에는 빨강, 노랑, 하양 꽃들이 군데군데 동지를 틀고 사람들을 오라한다. 산책로를 따라 들꽃을 눈에 담고 마음에 품으며 봄날의 여유를 만끽한다. 드림파크를 아름답게 수놓은 꽃과 나무를 키우는 온실은, 쓰레기를 매립할 때 나오는 가스를 열에너지로 바꿔 온도를 유지하는 친환경 공간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온실 안에는 미모사, 로즈마리, 스피어민트, 초콜릿자스



1 인천국제공항 스타가든
2, 3 청라생태공원
4 인천대공원 온실
5 원예치유정원



민 등 이름도 예쁜 식물이 한가득 피어있다. 향기롭게 피어오르는 풀향기와 흙냄새가 마음을 편안히 어루만진다. 여유분이 있으면 방문객에게 화분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한다. 또 다른 온실에는 가을 꽃밭 개방 때 쓰일 국화가 때를 기다리며 자라고 있다. 봄별 담뱃 받으며 정성스러운 손길을 받는 국화는 곧 꽃망울을 맺고 아름다운 자태로 피어날 것이다. 꽃구경 후에는 공원에서 한바탕 뛰며 돌아보자. 축구장과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육상트랙 등이 잘 조성돼 있어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 가슴에 곱게 새기기 충분하다.

Tip 매표지 견학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단체로 견학 신청을 받거나, 개인 및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홈페이지 견학예약시스템에 접속해 견학할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하고 예약한다. 수도권매표지관리공사 ☎560-9300, www.slc.or.kr

비행기 나르는 풍경 속 정원 스타가든

공항은 단순한 여행의 출발점이자 마침표가 아닌, 하나의 여행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저마다의 사연을 아로새긴다. 굳이 여행을 떠나지 않더라도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은 나들이 장소이기

도 하다. 여객터미널과 인천공항역을 잇는 교통센터는 여행객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 받는 인천국제공항의 명소다. 이곳에는 사계절 스케이트장, 멀티플렉스 영화관, 레스토랑과 카페, 쇼핑몰 등이 들어서 있어 한나절 즐겁게 보내기 충분하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에 오르면 실내정원 '스타가든'이 마법처럼 펼쳐진다. 이곳은 인천국제공항 실내정원 가운데 가장 큰 1천660㎡ 규모에 다양한 테마로 꾸며져 있어 웅만한 식물원 못지 않다. 우리나라 야생화와 자연석이 자라는 자생초화원, 색색의 꽃들이 눈부신 향연을 펼치는 컬러가든을 비롯해 아열대원, 수경정원, 대나무원 등이 아기자기한 동선을 따라 들어서 있다. 식물이 내뿜는 상쾌한 공기, 시원하게 흘러가는 작은 폭포와 시냇물이, 이곳에 숲속인 듯 착각에 빠지게 한다. 운이 좋으면 유리창 사이로 포물선을 그리는 비행기도 눈에 담을 수 있다.

Tip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역까지 공항철도가 개통하면서 더 많은 이들이 교통센터를 찾고 있다. 인천공항역에서 내려 교통센터 2층으로 올라가면 스타가든이다. 24시간 무료 개방한다. 인천국제공항 ☎1577-2600, www.airport.kr

숲 사이로 봄이 반짝반짝 인천대공원

관모산과 상아산을 병풍삼아 그림처럼 펼쳐진 인천대공원은 맑은 물, 푸른 숲이 있는 도심의 쉼터. 이곳은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깊고 푸르게 빛난다. 23만㎡에 이르는 대지에 다양한 테마로 펼쳐진 수목원에는 식물 21만4천여 본이 자라고 있다. 오감원은 마음을 활짝 열고 자연을 온전히 느끼게 한다. 사계원에는 계절별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과 나무가 자라고, 해안사구원에는 순비기나무, 통보리사초 등 인천 섬에서 자생하는 해안식물이 한가득 피었다. 식물원에서도 봄별 흠뻑 맞은 자연을 누릴 수 있다. 지난 96년 문을 연 식물원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키 재기를 하며 뿌리내리고 있다. 선인장이 있는 다육식물실은 사막을 옮겨놓은 듯 이국적인 풍취로 사진 속 뒷 배경으로 인기가 높다. 열대식물실에서는 바나나, 구아바, 두리안 등 열대지방에서 자라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식물들이 반갑게 인사를 한다.

Tip 식물원은 오전 10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는 오후 5시까지) 열고 월요일은 쉬는 날이다. 입장료는 무료다. 인천대공원 ☎466-7282



집안에, 봄을 들여 놓으세요

굳이 야외로 나가야만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흙의 보드라운 감촉을 느끼고 씨앗을 심고 작물을 재배하며, 봄을 맞이하는 것도 특별한 경험. 햇빛이 잘 드는 베란다에 소박한 미니정원을 만들거나 옥상이나 아파트 1층 공간에 비밀 정원을 꾸며보자. 이탈리아 봉선화와 베고니아 등은 꽃이 화려하고 봄에 심으면 가을까지 피어 있어서 정원을 꾸미는 데 제격이다. 미나리, 방울토마토, 상추, 부추 등의 채소를 가꾸는 것도 좋다. 키우기가 까다롭지 않고 쑥쑥 자라나 가꾸는 재미가 쏠쏠하다. 인천에는 서구 공촌동과 연희동 일대, 계양 인터체인지와 남동 인터체인지 일대에 화훼농원이 몰려 있다. 이 곳에 가면 싱싱한 식물을 시중가보다 10~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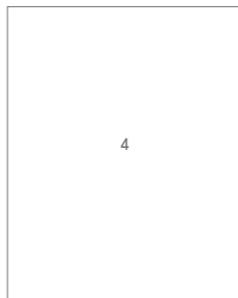
이제, 인천에서 뉴욕주립대 다닌다

미국 뉴욕주립대학교(SUNY) 스토니브룩 송도캠퍼스인 한국뉴욕주립대(SUNY Korea)가 이달 19일 개교한다. 한국뉴욕주립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에 들어서는 첫 글로벌 대학이자, 한국에 설립하는 최초의 미국 대학 캠퍼스다. 글로벌 교육허브 인천으로 세계의 인재들이 모일 날이 머지않았다.

글: 정경숙_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 1, 4 한국뉴욕주립대 전경
- 2 강의실
- 3 안홍식 부총장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에 외국대학 첫 상륙

이제, 유학을 가지 않고도 외국의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계의 인재들이 명문대학을 찾아 인천으로 유학 오는 날도 머지않았다.

미국 뉴욕주립대학교(SUNY) 스토니브룩 송도캠퍼스인 한국뉴욕주립대(SUNY Korea)가 이달 19일 개교한다. 한국뉴욕주립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에 들어서는 첫 글로벌 대학이자, 한국에 설립하는 최초의 미국 대학 캠퍼스다. 이로써 지난 2008년 7월 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방안을 수립한 지 3년 8개월만에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의 역사적인 대장정이 시작됐다.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은 주립 대학교군인 뉴욕주립대학교의 4개 종합대학교 중 하나. 지난 2010년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미국 공립대 순위에서 UC버클리대에 이어 2위에 선정될 정도로 미국 최고의 주립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런던타임스가 선정한 세계 대학 상위 1%에도 랭크됐다. 하버드·MIT·프린스턴·예일대 등이 속해 있는 미국 대학협회(AAU·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회원 대학이기도 하다. 특히 이공계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노벨물리학상, 노벨의학상과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뛰어난 교수진으로 유명하다.

한국과 스토니브룩의 특별한 인연

우리나라에는 재미 핵물리학자 고(故) 이휘소 박사가 교수로 재직했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오명 전 과학기술부총리(현 KAIST 이사장)과 이현순 현대기아차 전 부회장 등 많은 유명인사들이 미국 스토니브룩을 졸업했다.



본교와 같은 커리큘럼, 같은 학위 수여

한국뉴욕주립대는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캠퍼스에서 학생들의 입학과 졸업을 총괄하고 학위를 부여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본교의 개념이 아니라 미국 현지 대학의 일부로 미국대학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한국캠퍼스로 생각하면 된다. 커리큘럼은 미국 본교 교수진이 직접 파견한 교수가 100% 영어로 진행한다. 학위도 본교와 동일하게 수여한다. 한국뉴욕주립대와 미국 대학 양측의 승인을 받고 미국시민이 아닐 경우 미국비자 발급 요건만 맞으면 본교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도 있다.

개교 첫해에는 컴퓨터과학(Computer Science)과 기술경영(Technology and Society) 두 개 분야에서 석·박사 과정 대학원(정원 407명)을 운영한다. 올해는 1학기 신입생 110명(석사100명·박사10명)을 선발했으며, 이후 매년 학과를 확대하고 학부 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다. 스토니브룩 컴퓨터과학 전공은 최근 대학원 과정을 평가하는 미국국립연구평가기관 'NRC 서베이(NRC survey)'에서 미국 석사 프로그램 상위 20안에 랭크될 정도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기술경영 전공은 첨단기술과 사회학 등 서로 다른 분야를 통합해 다루는 융합학문이다.

송도글로벌캠퍼스 무엇이 강점인가

송도글로벌캠퍼스는 학생생활 및 커리큘럼을 미국 본교와 같이 운영하고 동일한 학위를 수여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또 학생들이 본교 캠퍼스로 이동해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 인턴십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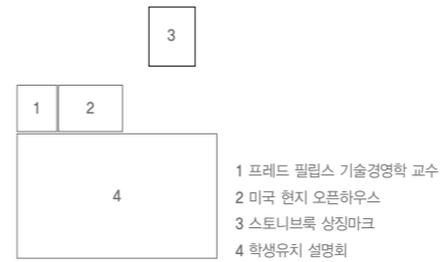
한국뉴욕주립대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먼저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 프로젝트, 자기계발계획서에 근거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활발한 클럽활동을 통해 외국인 학생 및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내 다른 대학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한국 내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에서의 수업과 인턴십 기회도 지원한다. 포스텍과 컨소시엄을 이뤄 글로벌 IT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2011년 IT 명품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시설도 자랑한다. 학생 2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1, 2인용 기숙사를 완비해 학생들이 공부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라운지와 운동시설,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을 마련해 편의를 더 했다. 이와 함께 한국뉴욕주립대 내 중

양도서관과 단과대학 도서관을 비롯해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 전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 학업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한국뉴욕주립대에 입학하려면?

GRE 성적표와 토플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며, IBT 토플 성적은 85점 이상이어야 한다. 가을학기 마감일은 4월 30일이다. 년 2학기로 진행하며, 2012년 기준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포함한 등록금은 한 학기에 약 8천달러다.



Songdo Global University Campus

송도로 세계의 인재가 몰려 온다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대학들이 송도글로벌 캠퍼스로 모이고 있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는 해외 유명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과를

한 캠퍼스에 모아 전체적으로 종합대학을 이루는 세계 유일의 교육모델.

한국뉴욕주립대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에 첫 글로벌 대학으로 입성한 데 이어, 미국 조지 메이슨대학(George Mason Univ)과 벨기에 겐트대학(Ghent Univ)이 내년 개교를 앞두고 있다. 조지메이슨대는 경영·경제 학부 과정을 겐트대학은 바이오·환경기술에 대한 학부 과정을 갖추고 설립하게 된다. 이들 대학 외에도 앞으로 외국대학의 입주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미국 유타대와 미주리대, 영국 서리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 등 10개 대학이 인천경제청과 입주를 협의하고 있다.

한편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가 지난달 19일 있었다. 송영길 시장은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글로벌대학캠퍼스를 동·서양 간 지식·문화 교류의 장 및 세계적 교육연구 중심으로 조성하도록 기여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는 오는 2014년까지 송도지구 7공구에 29만5천㎡로 조성한다. 해외 유명대학 10여 개교가 들어서고 세계 각국에서 학생 5천 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교육허브 인천으로 세계의 인재들이 모일 날이 머지않았다.

송도글로벌캠퍼스 외국대학 유치현황

■ 개교

학 교 명	개교예정 프로그램	예상학생 수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SUNY Stony Brook)	컴퓨터과학, 기술경영(대학원)	407명

■ 교과부 설립승인 신청 예정

학 교 명	개교예정 프로그램	예상학생 수
조지메이슨대(George Mason Univ)	경제학, 경영학, 국제학(학부)	1천 500명
겐트대(Ghent Univ)	바이오, 환경, 식품공학(학부, 대학원)	1천 200명

■ 양해각서 체결

학 교 명	개교예정 프로그램	예상학생 수
유타대(Univ of Utah)	교육학, 자연대, 공학 등	1천명
알프레드대(Alfred University)	공학, 예술대학, MBA	500명
일리노이대(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공대, 도서관정보, 교육대	500명
모스크바대(러)(Lomonosov Moscow State Univ)	미정	미정
상트 페테르부르크대(러)(Saint-Petersburg Univ)	미정	미정
미주리대(Univ of Missouri)	미정	미정

우수학생, 인천 명문고로 모인다

꿈 그리고 열정

인천의 학력향상을 위한 몸부림이 뜨겁다.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은 높아가고 있으나 교육분야 기반시설은 부족해 타 지역으로 우수학생이 전학가는 사례가 많아, 교육경쟁력은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시는 '현모인천(賢母仁遷)'전략 하에 학력향상 선도학교, 잠재성장학교 등 우수명문고를 만들어 학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력있는 교육 기반을 쌓고 있다. 또 전국에서 우수한 대학입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제2의 포항제철고'를 2015년 설립하고, 인천국제고, 과학고, 하늘고, 인천외고, 미추홀외고를 통해 인천의 우수학생을 지역의 인재로 양성하고 있다.

글. 이용남_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_자유사진가



- 1
- 2
- 3

1 인천하늘고등학교
 2 인천국제고등학교
 3 인천과학고등학교



송도에 제2의 포항제철고

포스코재단은 인천 송도에 제2의 포항제철고를 2015년 개교한다. 인천 교육에 또 하나의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제철고는 201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 합격생 기준 전국 4위(특목고 제외)를 기록했다. 학교는 송도국제업무단지 더샵 그린에비뉴 옆에 위치한다. 포스코 교육재단은 포항제철고 설립·운영 기관으로 유명하다. 포항제철고는 2011학년도에 서울대 합격생 34명을 배출했다. 연세대에는 30명, 고려대에는 46명이 진학했다. 포항제철고는 201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도 서울대 합격자 24명을 배출하는 등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교다. 광양제철고 역시 2000~2009학년도 전남지역 대학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송도에 30학급(750명) 규모의 학교를 설립한

다. 송도 주민을 비롯해 포스코그룹 계열사와 송도 입주기업 자녀들을 대상으로 입학생을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71년 설립된 포스코교육재단은 제철소가 있는 포항과 광양에서 유치원과 초·중·고교 12개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의 첫 자사고 하늘고등학교

인천공항공사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낙후된 영종지역 발전 차원에서 설립된 인천의 첫 자립형 사립고인 인천하늘고는 지난 2011년 개교했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인천의 대표적인 명문학교로 육성하고 있다. 하늘고는 올해부터 강남구청, EBS에 못지 않는 인터넷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영·수학을 주로 강의하고 인천지역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성적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 3월부터는 러시아에서 유명한 수학교수를 초빙, 러시아 수학기



QR코드로
인천하늘고
포스코교육재단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대회 문제, 입학시험, 러시아대학 수학 1학년 과정을 가르치는 고급 수학과정을 강의한다. 주말에는 인천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오픈하며,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교육기관의 면모를 보여준다.

하늘고 재학생 전원은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주말마다 대학교수에게 고급 교양과정을 듣는 '위크엔드 칼리지 코스', 방학 중에 교수와 함께 프로젝트 논문을 완성하는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소통교육', 개인 취미와 소질을 살리는 '1인1특기 개발교육' 등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늘고는 다른 자립형 사립고가 수업료를 일반고의 세 배까지 받는데 비해 두 배를 받고 있어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글로벌인재 양성 인천국제고

작년 국가수준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국제고 중 1위를 달성한 인천국제고, 중학교 영어성적이 1등급(상위 4%) 이내에 들어야 지원가능하다. 여기에 자기주도학습 계획, 잠재력, 가능성을 면밀히 살핀 후 면접을 통해 우수학생을 선발한다.

이 학교는 '대한민국 상위 1%만들기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학생들의 수요와 맞춤형 학습차원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을 위한 학교 자체 테스크포스팀 운영, 학교 수준을 고려한 스터디 케어와 스터디 클리닉을 통한 철저한 일대일 맞춤지도, 대학별 논술 및 심층 구술면접 지도, 선택과 집중의 정선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독서, 토론, 논술 연계 프로그램으로 교과활동의 질을 높이고 있다.

국제고는 학습 이외에도 미래의 인재양성 차원에서 봉사과 나눔을 강조한다. 주말을 이용 영종도나 인천의 중학교를 방문, 공부 어렵거나 학습결손이 있는 초·중학생의 학습을 돕는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학생들이 스스로 체험하는 기회를 풍부히 갖고 있다.

과학영재의 산실 인천과학고

수학과 과학영역의 영재를 조기발굴하고 국가의 우수영재로 키우고자 설립된 인천과학고. 과학분야 우수인재들을 이공계로 진로를 개척하도록 돕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고급 과학인력을 양성하

는데 최대한 목표를 두고 있다.

과학고 학생들 대부분은 2학년에서 조기졸업한 후 각자의 적성과 목표에 따라 대학으로 진학한다. 교육과정도 창의력과 탐구력 개발을 위한 교육활동을 우선한다. 즉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발표하는 수업방식을 채택, 과학수업의 질을 높이고 있다.

학생들은 국가 인재로 양성되는 만큼 인성함양은 물론 지역 주민, 시설, 과학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에 헌신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 키운다.

동아리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어 학생들은 1인 3개의 동아리에 참여한다. 교내의 경시대회 관련, 학력향상, 취미동아리 활동을 반드시 해야한다.

신입생은 인성, 자기주도학습 능력, 공부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면접 선발한다. 한편 진산고가 제2의 과학고로 2013년부터 전환한다. 부평 진산고가 제2의 과학고로 전환하면 인천의 우수과학영재들이 특목고 진학을 위해 타 시도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어교육 강점 미추홀외고, 인천외고

외국어 교육에 강한 글로벌 인재 양성교육이 이뤄지는 미추홀외고는 '인천 첫 공립형 외고'다. 영어반 3개반, 중국어과 2개반, 일본어과 2개반, 프랑스어과 1개반 등 모두 8학급 규모다.

미추홀외고 교육과정의 특징은 학생 스스로 자신이 부족한 과목을 선택해 듣는 제도를 두어 학생 스스로 취약과목을 강화시키고 있다.

미추홀외고도 학생들 전원이 기숙사생활을 한다. 사교육이 이뤄질 수 없는 교육환경이기에 자기주도학습에 철저를 기한다. 또 공부만이 아닌 전인교육에 방점을 찍기 위해 1인 2개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984년 설립된 인천외고의 강점은 차별화된 교육과정이다. 외국어 강화 수업방식의 하나로 원어민 수업을 소수 분반으로 진행한다. 독서교육으로 일주일에 2시간씩 책읽기가 이뤄진다.

인천외고는 교사의 질 또한 높아 석·박사 출신 다수의 교사진과 원어민교사가 학생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1, 2학년 학생들은 '1인 1어학증제'에 따라 1개 이상의 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배다리에서 황어장터까지 ‘대한독립 만세~’



1919년 인천에서는 3월 6일부터 3·1 만세 운동이 시작됐다. 3월 6일 인천공립보통학교(현 창영초) 학생들이 정오에 학교를 출발해 인천공립상업학교(현 인천고) 학생들과 합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가를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했고 곧 동맹 휴학에 돌입하면서 만세운동이 본격화 됐다. 3월 8일에는 인천 시내 이곳저곳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었으며 부두와 정미소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격문이 나돌았다. 다음 날인 3월 9일에는 일부 시민들이 만국공원(현 자유공원)에 모여 만세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됐다.

글. 유동현_본지 편집장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일본도시나 다름없던 인천에서 ‘만세’

인천은 3·1독립운동 당시 인구구성을 볼때는 조선 땅 안에 있는 일본의 한 도시나 다름 없었다. 인천의 총 인구는 3만 6천여 명. 이 중 한국인과 일본인의 수는 각 1만5천여 명씩 절반을 차지했고 나머지 1천명은 청국인과 기타 외국인이었다. 최소한 두 명 중 한 명은 일본인이었다. 그런 인천에서도 예외 없이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인근의 수원이나 화성과 마찬가지로 3월부터 5월까지 격렬한 만세시위가 있었다.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씩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는 인천지역에서 집회 횟수 8회, 집회인 수 약 9천명, 투옥자 수 15명인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만세시위까지 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만세 시위는 장거리 황어장터의 만세운동이다. 당시 행정구역으로 부천군 계양면에 있던 황어장터는 소를 주로 거래하는 우(牛)시장으로 매일 5일(음력)이 장날이다. 1919년 3월

24일 장날. 그날도 1천 여명의 인파가 장터에 모였다. 오후 2시. 주민 6백 여명이 일제히 품에서 태극기를 꺼내 들고 목이 터져라 ‘조선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는 만세운동 발생 3시간 만인 오후 5시께 거사를 주도한 오류리 주민 심혁성을 체포했다. 그러나 주민 수백 명은 “심혁성을 내놓아라”고 외치며 일본 순사 4명을 포위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거세게 저항했다. 이에 순사들은 칼을 빼들고 군중을 향해 휘둘렀고 대열의 선두에 섰던 이은선(李殷先)은 칼에 맞아 살해되고 주민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

황어장터 만세운동은 인천에서 벌어진 다른 만세운동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적극적이고 규모가 큰 항일투쟁이었다. 면사무소를 파괴하는 등 본격적인 대규모 항일운동이었던 황어장터 만세운동은 이후 3월 27일 문학동 시위, 3월 28일 남동시위, 4월 1일 월미도 등지의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1919년 3월 27일자 ‘매일신보’는 당시 황어장터 만세운동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인천경찰서 관내의 경계선 되는 부천군도 불온의 형세가 있으므로 인천경찰서는 만일을 경비키 위해 23일 순사 3명을 부평주재소에 임시 응원으로 파견하였더라… 그런데 24일 부평을 밖 시장에서는 장날을 좋은 기회로 삼아 군중이 만세를 부르고 면사무소를 파괴했다… 다수의 군중은 검거된 범인(심혁성)을 빼앗고자 돌을 경관에게 던지고, 경찰관에게 달려든 자도 있어서 경관 등은 발검하여 소요자편에 5~6명의 사상자를 내고 간신히 범인을 호송하여 주재소로 돌아왔다…’.

황어장터 만세운동 주도, 심혁성 지사



황어장터 만세운동에서 우리는 한 인물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 시위를 주도한 심혁성 지사이다. 풍산(豊山) 심씨 문식(文植)씨의 큰 아들로 1888년 부천군 계양면 오류리에서 태어난 심혁성 지사는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운 후 주로 농업에 종사했으며 독실한 천도교인이었다. 3·1운동이 국내외 각지에서 발발하자 심 지사는 당시 부천군 계양면 지역의 천도교, 기독교 세력과 농민들을 규합해 본격적인 만세운동을 벌이게 된다. 이로 인해 그는 보안법 위반 및 소요·직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형을 언도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3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심혁성 지사는 1921년 만기 출옥한 뒤 서울에 잠입해 천도교인 장동호와 함께 암약했다. 1927년에는 함경도 안변군 위익면 청학리에 임시거처하며 상해 임시정부와 두 차례에 걸쳐 국내의 활동지시를 받고 활동했다. 1937년 이후에는 충남 공주, 강원도 영월, 전북 무주 등지를 돌며 군자금 모금활동을 전개하다가 8·15 해방을 맞았다.

심 지사는 한국전쟁이 끝난던 해에 가족 모두 데리고 인천시 북구 백석동으로 이사를 왔고 1958년 12월 14일 향년 70세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동네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고 매일 아침 기도(천도교)를 드렸다고 전한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황어장터 3·1 만세운동 기념관





“방 뿐인가, 참한 색시도 얻어주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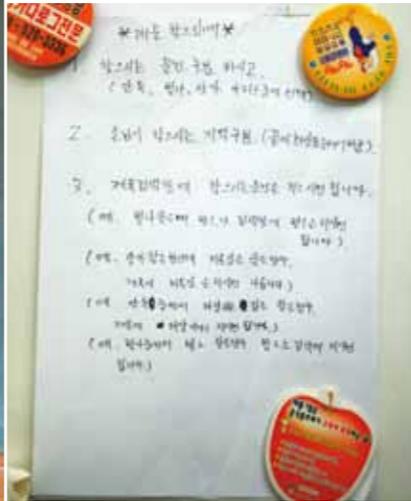
북덕방(福德房)은 ‘생기복덕(生起福德)’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복과 덕을 가져다주는 곳이라는 뜻이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업종이 또 있을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북덕방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이제 한집 걸러 부동산중개업소 간판만 걸려있을 뿐이다. 더 이상 복비는 없고 수수료만 있을 뿐이다. 노래방, 찜질방, PC방, 빨래방, 비디오방... 모든 ‘방’ 자 돌림의 원조격인 북덕방은 이제 추억 속 사진첩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글. 유동현_본지 편집장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시계바늘을 30여 년 전쯤으로 돌려보면 떠오르는 풍경 하나. 동네 어귀에 접어들면 오늘도 여지없이 반쯤 열린 북덕방 문 사이로 할아버지들의 술주렴 잡담과 장기 두는 소리가 새 나온다. 묵은 담배 냄새도 함께 묻어 나온다. 그곳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도 뽑았다 뺐다 한다. 북덕방은 멀리 미국 이야기부터 동네 일상사까지 온갖 소문들이 떠돌고 걸러지는 여론 집합소다. 북덕방 주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 문맹시대에 돋보기 안경을 코에 흘려 쓰고 문자깨나 읽어야 했고 무엇보다 동네사람들에게 인품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어야 했다. 때론 풍수쟁이를 검했고 동네 사정도 꿰뚫어야 했다. 어느 집에 살던 누가 언제 입신양명해서 떠났는지, 혹은 어느 집 부부가 멀쩡히 잘 살다 즐지에 갈라섰는지, 어느 집 주인이 성질이 까칠해서 셋방 사는 이들을 피곤하게 하는지, 어느 집 천장에서 물이 새고 어느 집에서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자주 일어나는지 등등을 다 알아야만 비로소 온전한 북덕방 주인의 자격을 갖추 수 있었다. 동구 화수동 송현초등학교 뒷담에 걸쳐 있는 쌍우물로 동네. 오래 전부터 주변에 큰 공장들이 들어서 있고 화수부두와 만석부두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공장 근로자와 뱃사람 등 토착민과 외지인이 섞이면서 사람들이 많이 들고 나던 동네다. 그 동네 어귀에 옛날 북덕방의 흔적이 남아있는 부동산 업소가 하나있다. 쌀가게를 겸하는 강화부동산이다. 사장은 김송자(73) 할머니다.

김송자 할머니가 부동산중개업을 하게 연유를 들어보자. 경기도 광주에 살던 처녀 김송자에게 인천 청학동에서 중매가 들어왔다. 친정아버지는 딸의 신랑감을 직접 보기 위해 인천으로 왔다. 그 자리에 나온 청년 오순성은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잔뜩 가지고 나왔다. 한동안 그 상장들을 일일이 보고 난 아버지는 중매가 성사됐음을 밝히고 바로 광주로 돌아갔다. 얼마 후 처녀 김송자는 청학동으로 시집오게 되었다. “인천고에 다니면서 받은 남편의 상장들을 보시고 혹 하신거예요. 공부 잘했으니까 당신 딸 먹여 살리는 데는 문제없겠다고 생각하신거죠. 오순성 그 양반, 전략이 참 좋았지”.



기발한 전략이 통해서 결혼엔 골인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남편네 집은 너무 가난했다. 1만7천원의 빚으로 청학동 단칸방을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새댁 김송자의 억척스러운 삶이 시작되었다. 대성목재에서 경비일을 하게 된 남편 오순성(2년 전 작고)씨를 따라 화수동에 정착한 김 할머니는 반찬값이라도 별 생각으로 인근 냉동공장에서 일했다. 어느날 퇴근을 하는 데 평소에 쌀을 대먹던 '강화쌀집' 할머니가 잠깐 보자는 손짓을 했다. 작은 체구에 항상 바지런한 김송자씨를 눈여겨 본 쌀집 할머니는 쌀가게를 인수할 생각이 없냐는 제의를 했다. 하루 이틀 고민을 했다. 밀천은 전혀 없었지만 '쌀장 사하면 굶어죽진 않겠구나' 해서 덜컥 맡게 되었다. 1973년에 취득한 양곡매매신고서와 간판을 고스란히 이어 받았다. 그때가 1978년, 그의 나이 38세였다. "가게에 정부미 60kg짜리 세 가마니를 놓고 시작했어요. 통금이 있던 때인데 첫날 밤 12시까지 손님을 기다렸지만 허탕이었죠. 3일째 되던 날 겨우 쌀 한 되를 팔았어요. 그 감격이란...". 당시 화수동은 인근에 공장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비교적 좋았다. 비록 봉지쌀이었지만 쌀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간혹 한두 명이 쌀을 사러왔다가 동네 셋방 사정을 물어보곤 했다. 평소에 귀동냥을 해서 들은 정보로 이 방저 방을 소개해주곤 했다. 그 댓가는 계란 한판, 박가스 한 박스

등으로 돌아왔다. 날이 갈수록 동네 아낙들이 전해 준 정보가 쌀더미와 함께 하나 둘씩 쌓여갔다. 김 씨는 아예 쌀집 옆에 '강화북덕방' 간판을 내걸었다. 북덕방 할아버지가 대세였던 시기에 북덕방 아줌마가 등장한 것이다. 물론 자격증은 없었지만 하루에도 두세 건은 거뜰히 계약을 성사시켰다. 북비는 정해진 게 없었다. 쌀을 자주 사가는 사람에게는 공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에게도 공짜. 술가락 하나 달랑 들고 이사 온 농촌총각에게는 월급 받은 후 절반. 80년대 초 당시 어느 북덕방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 하나. 방한 칸을 세놓겠다며 집주인은 강화북덕방에 조건 하나를 내걸었다. 아이는 둘 이상 있는 가족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어느날 월세방을 찾는 부부가 북덕방을 찾아왔다. 마침 아이가 둘이어서 그 집을 소개해줬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이사를 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자 아이는 세 명이 되었다. 그 다음주에는 생김새가 비슷한 아이 한 명이 붙어났다. 몇일 후 또 다른 아이 한 명이 그 아이들 틈에 끼어 놀았다. 그 집의 아이들은 모두 다섯 명이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김 할머니 눈가가 살짝 젖는다. 화수동 초기 시절 살림이 너무 쪼들려서 입을 좀 덜러는 마음에 큰딸을 친정에 보내려고 하던친역으로 데리고 나갔다. 딸아이가 기차를 탄 줄 알고 집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데 역 아래쪽 철책 틈 사이

로 그 어린 딸아이가 기어 나오고 있더라. 아무 말 하지 않고 딸의 손을 꼭 잡고 속울음을 삼키며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 시절 어느 집이나 하나씩 품고 있는 우리네 슬픈 가족사의 한토막이다. 김송자 할머니에게는 낡은 다이어리 수첩이 10여 권이 있다. 그 수첩에는 30여 년 동안 거래한 매물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다.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되면서 김 할머니도 85년 11월에 사업등록증을 정식으로 내걸었고 컴퓨터도 한대 들여 놓았다. 부동산 프로그램을 통해 매물정보를 검색해서 거래를 종종 하지만 여전히 낡은 수첩의 정보가 더 편하고 정확하다. 그 수첩은 강화북덕방의 CPU(중앙처리장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마치 돌도끼를 들고 인공위성과 스텔스기 등 최첨단 무기를 갖춘 젊은 중개사들과 '맛장 뜨는' 듯한 형국이지만 강화북덕방의 김송자 할머니는 전혀 밀리지 않는다. 수첩 하나를 들쳐봤다. 이상하게도 거래자의 이름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백구두 할아버지, 이빨 빠진 키 큰 아저씨, 천식 있는 아줌마, 귀걸이 많은 아줌마, 원룸 노처녀, 예쁜 제주도 색시...' 등 신체적인 특징을 적어 놓았거나 혹은 '경숙이 이모, 미룡아파트 사는 젊은 엄마, 봉섭이 누나...' 등 이런 식이다. "다 기억하지. 그게 내 암호여. 이름은 까먹어도 그 사람 특징은

한번 쓱 보고 수첩에 적어놓으면 생생하게 생각나요." 거래할 집의 정보도 주소보다는 외관이나 특징이 우선한다. '화도고개 옛 닭집 자리 1동사무소 앞집, 크게 있는 집, 파란대문 뒷골목 왼쪽 두 번째 집, 전봇대 있는 집'. 그런데 예외가 있다. '김○희 토끼띠 데이콤 키160' '대우총각 미남 박○식 고졸 9년 입사 키175' '34살 사무직 대리 전문대 군산 2남1녀 장남 키172 이○철' 이름과 신장, 나이와 직장 정보 등이 세세하게 적혀 있다. 중매 메모다. "이 동네는 전국 각지에서 직장을 찾아 올라온 젊은이들이 많아요. 방 얻으러 왔다가 중신 좀 서달라고 부탁하는 이들이 간혹 있지요. 가끔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좋은 며느리감이나 사위감 될만한 사람을 골라서 세놓고 싶어하기도 하고요." 이제 봄이다. 날씨가 풀리면 골목마다 이삿짐을 싸고 푸는 집이 많아진다. 김송자 할머니의 발걸음도 덩달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해질 때다. 두 평짜리 북덕방 책상에 놓인 2012 다이어리 수첩에는 다시 할머니만의 무수한 암호들이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어김없이 이렇게 또 한 줄 적힐 것이다. '당진에서 온 두산 총각 키175 방 한칸과 중매 원함'.



어린이집 교직원
보육 40만명
보수 3000억



전국 최초 만 4세아 무상보육에 대한 기대

시보육정책과 인천시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장 윤재석입니다. 시의 보육정책을 짚어보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각 보육주체를 대표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4세 아동에게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부모의 고민을 일부 해결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사 저는 가정어린이집 교사이기도 하지만 두 살된 아이를 시설에 보내야 하고 지금 뱃속에 둘째가 있는 엄마이기도 해요. 저만해도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휴가 후에 바로 복귀해야 하는 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보육정보센터장 정부가 내놓은 0~2세 무상보육으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맞벌이부부들이 보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현재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맞벌이부부의 아이를 우선으로 받고 있는데, 시에서도 가능하다면 차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도 맞벌이일 경우 0~2세 입소 순위를 우선으로 둘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장 마미정

시보육정책과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보편적인 복지 속에서도 타당한 선별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무상보육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 부모들이 차액 부담으로 무상보육을 실감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는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OECD 국가 가운데도 부모가 보육료 차액을 안 내는 나라는 없어요. 보육의 최선봉에 있는 노르웨이도 6만원 정도의 차액을 내지요. 부모가 우리아이를 보육하기 위해 일부는 부담하겠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연합회장 서정혜

국공립보육시설연합회장 먼저 인천시에서 만 4세를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무상보육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0~2세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0~2세 영아는 시설교육보다 엄마의 양육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교사 처우 개선비 작년보다 올라

교사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또 하나, 교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업무가 너무 과중해졌어요. 그런 부분이 쌓이면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시보육정책과 무상보육의 질을 높이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교직원의 처우개선입니다. 그 일환으로 시는 교직원 처우개선비를 만 교사는 전년보다 3만원이 오른 월 20만원, 만 5세 아를 담당하는 교사는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원의 복지향상은 시설장이 담당해야하지만 시도 나름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보육정책과 김국경

인천의 희망, 맘껏 배우고 놀고 꿈을 키우렴!

우리시는 한 아이가 태어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열심히 일하며 여유롭게 노년을 맞는 '행복의 순환 고리'를 완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인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만 4세 아동에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행복백만 프로젝트'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인천의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시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장(윤재석)과 인천보육정보센터장(마미정), 국공립보육시설연합회장이자 어린이집 원장(서경희)과 가정어린이집 교사(김환희)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김상미)가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시 보육정책에 대한 여러 제언을 나누며, '맑은 눈동자들이 거목으로 자라' 더 밝게 빛날 인천의 미래를 확인했다.

글: 정경숙_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_자유사진가



아이를 믿고 맡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보육정책과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무상보육으로 집에 있던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쏟아져 나와 어렵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이럴 때 부모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되기를 절실하게 바랄 것입니다. 이에 시는 오는 2016년까지 100개의 시설을 늘려 국공립시설을 208개로 확충하는 '행복백만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연합회장 부모교육, 정말 절실합니다. 제가 35년 보육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바는 '아이들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감사할 줄 알고 미안해 할 줄 아는 법을 부모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보육정보센터장 센터는 부모교육을 위해 온라인 웹사이트에 정부보육정책, 어린이집 이용 에티켓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 '엄마아빠가 달라졌어요' 코너를 통해 문제가 있는 가정을 개선시키며 우리 가정이 갈 길을 모색하고 있어요. '부모는 아이의 모델'입니다. 권리는 요구하면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상황이 누적되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보육료를 지원받는 부모에게는 교육을 의무화시켜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시보육정책과 부모의 참여도를 높이려면 교육을 이수해야 일정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것과 같은 강력한 매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시와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육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위한 제언

보육정보센터장 인천의 보육 브랜드는 '함께 키움'입니다. 좋은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보육정책을 펼치는 시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시민의 조언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아이들을 바른 방향으로 '함께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모 단지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육정책을 펼치길 바랍니다.

교사 정책에 대해 바로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아직 정책에 대해 모르는게 많으니 교육을 통해 잘 알려주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노동법과 보육법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세요.

국공립보육시설연합회장 이미 낳은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건 사실 늦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멀리 미래를 보고 미혼 청년들까지 교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말에 걸맞도록 부모와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인천에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시 보육정책과 해주신 말씀은 시가 하나하나 새겨서 더 나은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자랄 수 있는 교육환경을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 두손 들고 반깁니다. 현재 많은 부모들이 민간어린이집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면 부모의 부담도 줄고 교육수준도 높아지겠지요.

국공립보육시설연합회장 전국 16개 시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평균 10%인데, 우리시는 5%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의 경우 인구가 적은 동구에 있는데도 한 어린이집 당 200명 이상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을 환영합니다. 부모들이 원하고 있고, 우리도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보육정책과 사실 정부의 협조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예산 110억원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2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 제언하고 싶은 바를 말씀해 주세요.

보육정보센터장 관할 지자체와 잘 협의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뒷받침해 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보육, 휴일지정 보육 등 지역의 특수성에 맞춰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지요. 예컨대 공단지역 시민의 경우 이러한 배려가 큰 도움이 되겠지요.

전국 최초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

시보육정책과 지역이나 대상에 따라 취약한 부분을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완해 이끌어 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아무리 제정이 어려워도 꼭 이루겠습니다. 이제 부모교육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작년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부모교육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큰 방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부모교육을 법에 넣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설에서 교육을 잘해도 부모교육이 바르지 않으면 가정에서 허물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부모 절실히 필요합니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지요. 하지만 부모들은 시설에 아이를 맡긴 후 바라기만 하고 해야 할 도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라서 못하기도 하지요.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 시해주면 좋겠습니다.

교사 교육이 잘 되려면 부모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사실 어린이집에서도 부모교육을 하지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안내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부모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시보육정책과 부모의 요구는 높은 데 참여도는 낮은, 현 상황에서 부모의 참여도를 어떻게 높이느냐에 따라 부모교육의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부모교육은 현재 어린이집에서 진행되는 단순한 현장학습의 수준을 넘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여는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요.



대한민국 보육정책, 인천이 앞장섭니다!

우리시는 민선5기 시정 핵심목표로 선정해 추진해 온 '아이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를 적극 실현해 가고 있다. 먼저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4세 모든 아동에 대해 전면 무상보육·교육을 추진한다. 시는 모든 영유아에게 단계별로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100개 확충해 어린이 1만명을 수용하는 '행복백만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또 시설과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또 다른 주체인 부모가 역할과 책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강화한다. 이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을 선도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문의 시 보육정책과 440-2891



3월 공연·전시 Calendar

SUN	MON	TUE	WEN	THU	FRI	SAT
<p>3월의 3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일 ~ 8일 코리아퀼트아티스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2일 ~ 18일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민화 속 이야기 / 인천광역시학예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8일 ~ 6일 코리아퀼트아티스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9일 ~ 11일 인천아트플랫폼 2012 입주작가 프리뷰전 / 인천아트플랫폼 B동 전시장 9일 ~ 15일 제6회 가재울 정기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16일 ~ 22일 제9회 정향숙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실 16일 ~ 22일 제4회 박준수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22일 ~ 1일 박준규 개인전 / 인천광역시학예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23일 ~ 29일 동양화가로전국창선화백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23일 ~ 29일 제26회 인천구상작가회원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실 23일 ~ 29일 제1회 김영임 수채화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p>1</p> <p>제93주년 3.1절 기념 시립교향악단 경축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무료초대 ☎시청 총무과 440-2216</p> <p>뮤지컬 <미녀와 야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원 ☎충원극회 031-238-0951</p>	<p>2</p> <p>피아니스트 임동혁 리사이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p>	<p>3</p> <p>스프링클레스 (2012 새봄음악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5시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5천원 ☎500-2000</p>
<p>4</p> <p>화인청소년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 초대 ☎화인청소년오케스트라 010-2378-2619</p>	5	6	7	<p>8</p> <p>뉴 필하모니아 함부르크 내한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3만원, S석 2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p>	<p>9</p> <p>인천아트플랫폼 토요창의예술학교 인천아트플랫폼 오후 12시~7시 / 무료 ☎760-1008</p>	<p>10</p> <p>2012 김광석 추억만들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VIP석 8만8천원,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614-0340</p> <p>2012 이만태 테마 콘서트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4시 / 무료 ☎760-1005</p>
11	12	13	<p>14</p> <p>매지버블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30분 전석 1만원 ☎아이제이씨(주) 777-1000</p> <p>카피콘서트 I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 윤학원(인천시립합창단) '음악이야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전석 1만원 ☎인천&아츠 1588-2341</p>	<p>15</p> <p>인천시립교향악단 피아노 & 피아니스트 시리즈 I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인천시립교향악단 1588-2341</p> <p>우정훈&지현수 스위트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 전석 5만원 ☎대웅상사 02-656-4568</p>	<p>16</p> <p>한울소리 타악콘서트 '울림과 공명'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 전석 3천원 ☎505-5995</p>	<p>17</p> <p>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1층 R석 7만7천원 / 2층 S석 6만6천원 ☎청라이프 1566-6551</p> <p>뮤지컬 갈라 D.O.M.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새리제을 오후 4시 전석 6천원(학생 무료) ☎760-3455</p>
<p>18</p> <p>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1층 R석 7만7천원, 2층 S석 6만6천원 ☎청라이프1566-6551</p> <p>셀레는 봄! 아름다운 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전석 1만원 ☎인음스트링앙상블 888-0807</p>	19	20	<p>21</p> <p>셀 위 샅스 (Shall we sax)의 색소폰4중주로 감상하는 '황금 선율의 추억여행'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 전석 3천원 ☎507-5996</p>	<p>22</p> <p>인천시립합창단 제129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인천시립합창단 1588-2341</p>	<p>23</p> <p>가족뮤지컬 <년 특별하단다>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오후 4시 전석 2만원 ☎500-2000</p> <p>인천시립교향악단 '스프링 클래식'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새리제을 오후 7시 전석 6천원(학생 무료) ☎760-3455</p>	<p>24</p> <p>인천원드오케스트라 <청소년을 위한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R석 1만원, S석 7천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p> <p>뮤지컬 <년 특별하단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5천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1</p> <p>가족뮤지컬 <년 특별하단다>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2시, 5시 전석 2만원 ☎500-2000</p>
<p>25</p> <p>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회를 위한 화합의 연꽃합창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 초대 ☎아이엔티 02-588-0974</p> <p>뮤지컬 <년 특별하단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1시, 3시 전석 2만5천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1</p>	26	27	<p>28</p> <p>행복한 무지개물고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1만5천원 ☎교육극단보물상자 819-1002</p>	<p>29</p> <p>행복한 무지개물고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1만5천원 ☎교육극단보물상자 819-1002</p>	<p>30</p> <p>2012 킬투소-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VIP석 8만8천원,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드림25엔터테인먼트 031-221-2186</p> <p>앤서니 브라운의 '행복한 미술관' - 오디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4시 / 전석 3천원 ☎505-5995</p>	<p>31</p> <p>2012 킬투소-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8시 VIP석 8만8천원,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드림25엔터테인먼트 031-221-2186</p>

커피콘서트 I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윤학원(인천시립합창단) '음악이야기'

3월 커피콘서트는 작곡가 최영섭과 지휘자 윤학원이 한자리에 조우한다. '그리운 금강산'을 비롯한 많은 명곡을 작곡해, '대한민국의 슈베르트'라고 일컬어지는 작곡가 최영섭과 인천시립합창단을 세계 정상으로 이끈 합창계의 진정한 마에스트로 윤학원 등 우리나라 음악계의 두 거목이 함께하는 귀중한 만남이다.

일시 3월 14일(수) 오후 2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1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인천시립합창단 제129회 정기연주회 <kum ba ya - 지구촌의 합창음악>

인천시립합창단이 2012년 새봄을 맞아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봄의 향기를 아름다운 합창으로 전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중국, 일본, 아프리카, 러시아 등 다양한 문화와 민족성을 엿볼 수 있는 세계 각국의 민요를 인천시립합창단만의 특색 있는 합창으로 새롭게 편곡해 즐거운 안무와 함께 즐길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언어로 전하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만끽해 보자.

일시 3월 22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인천&아츠 공연 피아니스트 임동혁 리사이틀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계의 스타피아니스트 임동혁이 국내 무대 데뷔 10주년을 맞아 그의 음악적 뿌리라 할 수 있는 러시아의 음악으로 피아노 리사이틀을 연다. 그는 피아노를 배운지 3년 만에 모스크바 국립음악원으로 유학, 쾨엘리자베스-쇼팽-차이코프스키 공쿠르로 대표되는 이른바 세계 3대 공쿠르를 석권하며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차이코프스키와 라흐마니노프의 폭발적인 강렬함과 낭만적 피아노의 정수를 통해 선보일 임동혁의 2012년의 첫 무대는 그가 젊은 거장으로 새롭게 발을 내딛는 놓칠 수 없는 무대가 될 것이다.

일시 3월 2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가족뮤지컬 '년 특별하단다'

12만 관객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던 감성 속속 뮤지컬 <년 특별하단다>가 인천 어린이 관객을 찾아온다. 세계적인 밀리언셀러 맥스 루케이도의 그림책을 국내 최초로 완성도 높게 공연화한 오리지널 아티스트들의 이번 공연은 신비한 그림자극과 정교한 움직임의 인형극을 통한 색다른 감동을 전해준다.

일시 3월 23일(금) 오전 11시, 오후 4시, 24일(토) 오후 2시, 5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티켓 전석 2만원
문의 500-2000

기획 공연 인천원드오케스트라 <청소년을 위한 가곡과 아리아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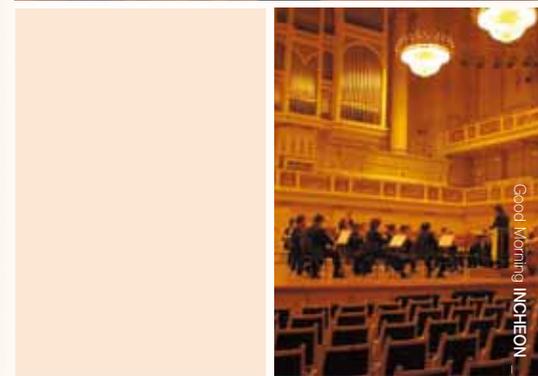
인천원드오케스트라는 기획연주회, 야외 공연, 찾아가는 연주회 등 인천시민 가까이에서 창의적이고 화려한 무대로 사랑받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가곡과 아리아의 밤>은 현재 전문연주자로 활동하는 동시에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는 테너 전인근, 나승서와 관록의 소프라노 이은란, 신예 소프라노 홍아름과 함께 유명 오페라의 아리아와 가곡을 들려준다.

일시 3월 24일(토) 오후 5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문의 1588-2341

인천&아츠 공연 뉴 필하모니아 함부르크 내한연주회

뉴 필하모니아 함부르크는 1999년 독일과 유럽의 유명 콘서트바리를 졸업한 뛰어난 실력과 재치를 겸비한 젊은 음악가들의 감각이 돋보이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내한연주회를 갖는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많은 유럽국가와 아시아에서 무려 1천회가 넘는 꾸준한 연주활동을 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번 연주에서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폰토의 왕 미트리다테>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로망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40번 g단조」 등 다양한 작풍의 곡을 그들의 해석으로 펼쳐 보인다.

일시 3월 8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3만, S석 2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사랑해요’ 인천, 인천 사람들

글. 정경숙_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_자유사진가



“열린 마음으로 아랍사람,
한국사람 누구나 다 도와주고 싶어요.
다 같은 인간이니깐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요르단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젊은 청년은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키우고 싶었다. 그 열정은 그를 지구반대편 땅에 뿌리내리게 했다. 마무드 슈크카니(41)씨는 지난 1998년 처음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자연스럽게 향만을 품고 있는 인천에 정착했다. 땀 흘린 만큼 사업은 번창했지만, 외로웠다. 한국말을 하지 못해 친구를 사귄 수 없었고 이국땅에서 편견의 벽은 높아만 갔다. 당시 만해도 인천에서 아랍인을 만나는 건 매우 생소한 일이었다.

하지만 14년이 흐른 지금, 많은 것이 달라졌다. 낯선 이는 친구가 되었고 그도 한국사람이 다 됐다. 현재 인천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마음을 나누기 위해 시민명예외교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향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면, 대회에 참가하는 이슬람권 12개국과 인천을 하나로 잇는 데 보탬이 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인천은 제2의 고향이에요. 인천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이제 나도 우리가족도 한국사람 다 됐어요. 김밥, 비빔밥, 김치 같은 한국음식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인천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마무드씨에게는 10여 년 전 열일곱 어린 나이에 자신을 믿고 이국땅에 와 준 부인과 보석 같은 딸 다섯이 있다. 이

들 가족과 인천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귀화도 결심했다. 하지만 가족은 현재 요르단에 있다. 인천에 아직 이슬람 문화권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이슬람권 사람들이 인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 등의 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꿈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 최근 제물포 근처에 땅도 샀다.

현재 인천에는 사업 등을 이유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랍인이 5천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정착 그들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지 않은지,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본다. 그들은 7,80년대 척박한 사막에서 함께 장밋빛 미래를 일구던 친구였고, 지금도 그렇다. 더구나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살라는 교리를 가슴에 품은 착한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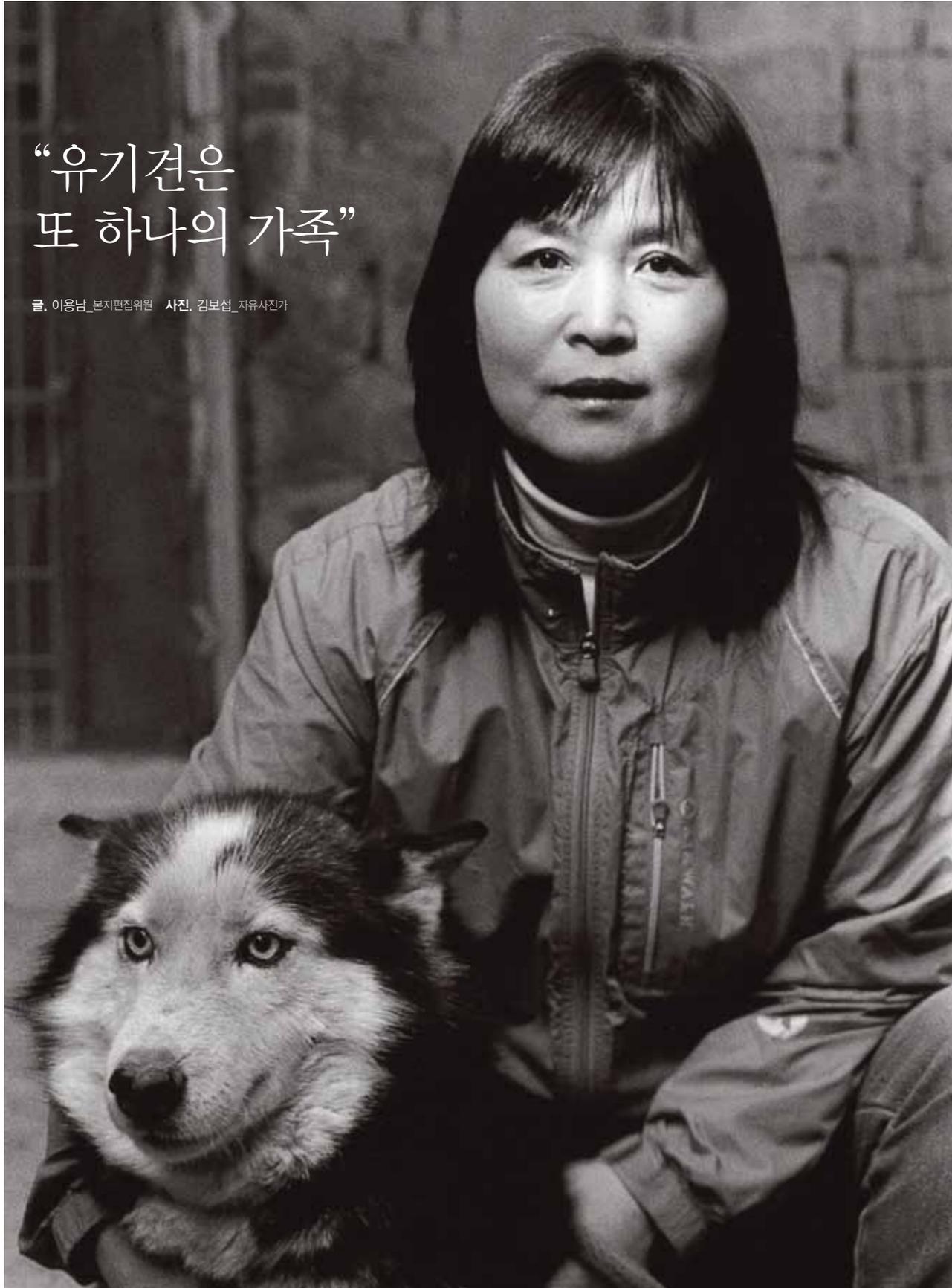
서구 북항 가까이에 있는 마무드씨의 사업소에서는 한달에 자동차 5천대가 증동으로 팔려나간다. 앞으로 증동·아랍을 넘어 멀리 미국과 유럽까지 진출해 사업을 크게 확장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면 사랑하는 인천, 인천사람들에게 되돌려주고 싶다.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아랍사람, 한국사람 누구나 다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니깐요.”



“유기견은 또 하나의 가족”

글. 이용남_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_자유사진가



“쉽게 얻으니 또 쉽게 버려요. 하지만 자식이 말썽부린다고 버리진 않잖아요.”



“우리 아가들 감기들어요. 빨리 문닫아 주세요.” 3월 꽃샘추위에 혹여 강아지들이 감기로 고생할까봐 아가들을 감싸는 정은화 대표(46). 유기견을 구조해 보듬고, 살피며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정 대표에게 개는 사람의 동반자이자 돌봐야 할 가족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녀가 이끌고 있는 유기견 보호단체의 이름도 ‘한국반려동물사랑연합’이다.

정 대표는 유기견을 구조하고, 보살피며, 다른 가족에 입양하는 일을 십수년째 하고 있다. 철거지역에 사람이 떠나면서 버린 개를 하나둘 구조하고 치료하면서 이 일과 인연을 맺었다.

이곳의 유기견들은 정 대표의 알뜰하고 살뜰한 보살핌을 받는다. 열악한 재정으로 사람이 있는 곳은 냉골이어도 유기견 보호공간에는 보일러를 돌린다. 유기견들의 안전한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정원도 80마리로 정해져 다른 집으로 입양을 보내고 빈자리가 생기면 시·도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 직전에 있지만 살릴 수 있는 아가들을 데려온다.

강아지들은 우선 인근 동물병원에서 질병 여부를 검사하고 보호소로 옮겨져 2주 동안 배변상태, 몸 온도의 변화를 진단받는다. 이후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고 난 다음 카페를 통해 입양신청을 하는 새 부모의 손길을 기다린다. 4년 전 단체를 만든 후 현재까지 8백여 아가들을 입양보냈다. 입양되지 않은 아가들은 보호소에서 계속 지내고 안락사를 시키지는 않는다.

“이곳에 들어올 때만해도 사람에게 의해 상처받고, 여기저기 떠돌다 병들고 다친 강아지들이 온전히 치료되어 다른 가족에 입양되는 모습을 볼땐 정말 일하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단체의 입양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가들을 입양시키는 않는다. 까다롭게 자격을 심사하지 않으면 이후에 또 다시 버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신남, 너무 어린아이가 있는 집, 신혼부부, 고령 노부부 등에는 입양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아가를 입양한 시킨 뒤에도 이후관리가 철저하다. 입양 후 단체 홈페이지나 카페에 입양일기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올려야 한다. 일기가 두 달 이상 올라오지 않으면 입양자에게 연락해 아가의 상태, 왜 일기를 올리지 않는지 알아보고, 연락이 안될 경우 입양자를 찾아가 확인한다.

“사람들이 개를 돈으로 쉽게 얻으니까 또 쉽게 버리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 말썽부린다고 버리진 않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정 대표는 단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유기견 치료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보호소도 임대한 것이라 언제 어느때 옮겨야 할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힘든 점이자 애로사항이다. 개인들이 5천원, 1만 원을 낸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개들의 큰 치료비나 수술비는 정 대표의 개인사비를 털기도 한다.

요즘같이 사람도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시대에 버려진 강아지를 가족처럼 보살피는 노력과 수고는 쉽지 않다.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 한 마리를 살리고 돌보는 정 대표의 무한한 생명 책임감과 노력에 경의감과 송고함을 표한다.

후원계좌 국민은행_212301-04-098853

추억의 소품이 된 운동기구

글. 조우성_시인, 인천시 시사편찬위원
사진. 홍승훈_자유사진가



역기와 아령.
100년 전과 50년 전 제품이다.

그 옛날 우리나라에는 '스포츠'란 개념이 없었던 것 같다. 무사들이 고구려 쌍영총 벽화 속의 들판을 달리며 활을 쏘거나, 남정네들이 김홍도의 풍속도 한 가운데서 힘을 겨루며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 등은 아무래도 '무예'나 '놀이'의 차원이었다고 보인다.

조선 말 때까지도 '스포츠 개념'은 없었던 듯 싶다. 그 시절 양반들은 매사 힘든 일을 하인에게 대신시켰는데, 스포츠도 '힘든 일'의 하나로 치부해 "왜 땀 흘려가며 힘든 일을 굳이 하는가?"며 혀를 찼다는 풍물사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가 '운동'이란 이름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개화기 이후의 일이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운영했던 학당들은 '운동'의 선구지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교사들이 가장 먼저 택한 '운동'이 기구를 갖추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체조나 달리기 등이었을 것은 쉬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인천 영화화당에서도 교사 '제시 비 마이커'가 체조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영화70년사'에 남아 있다.

체육은 1885년 2월 공포된 '교육조서'에 이미 3대 강령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었고, 1895년 공포한 '소학교령'에는 체육의 목표를 아동건강의 유지 증진과 발육 발달로 보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체조'를 시행토록 했던 것이다. 이때 외국어학교에서는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해 매일 1교시에 30분씩 체조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현 인천고등학교의 전신인 관립일어학교 인천지교가 1895년에 설립된 것을 감안하면, 그 무렵 인천 지역에 '체조'가 널리 보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인 1906년부터는 보통학교에서도 매주 3시간씩 체조를 필수 과목으로 행하였다. 하지만 그를 가르쳤던 외국인이나 군인 출신의 교사가 부족하였고, 시설과 장비도 열악하였다.

그런 결과로 체육 시간은 주로 병식(兵式) 체조 위주로 진행되었다. 1907년 애국계몽운동 차원에서 목총(木銃)을 돌려메고 북을 치며 시가행진을 벌여



스키

화제를 모았던 인천 영화화당 학생들의 고적대 활동은 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형태라고 하겠다. 그러나 체조가 군국주의 일본의 '정책적 도구'로 사용되던 때도 있었다. 1925년 JOAK 동경방송국에서 시작한 것을 JODK 경성방송국(지금의 KBS 전신)이 그대로 답습한 '라디오 체조'가 그것이다. 명분은 '전 국민의 건강 증진'이었지만, 속내는 '제국주의 이념의 강화'였다는 것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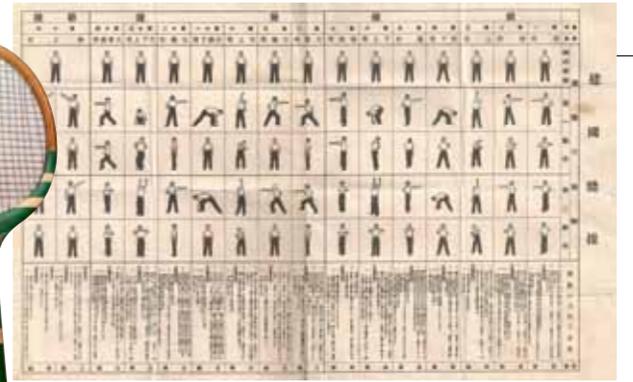
아직도 일본인들 가운데 일부는 군국(軍國)의 향수에 젖어 아침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구령에 맞춰 시행하는 '라디오 체조'에 참여하고 있고, 광복 후 전국 각지의 직장, 사회단체, 학교에서 행했던 '국민 체조'와 군대에서 배웠던 '국군 도수 체조'가 그 뿌리를 다 일본의 '라디오 체조'에 두고 있다는 것을 돌이켜 보면 섬뜩해지기도 한다.

어쨌거나, 체조의 기본은 손으로만 하는 '맨손체조'였다. 도구를 사용하거나 다른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순수한 몸놀림을 통해 육체적 단련과 정신적 함양 등을 꾀했던 것인데,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점차 기계 체조와 리듬 체조 등으로 발전해 갔다.

체조에 자연스럽게 기구나 도구가 융합돼 갔던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큰돈 들이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철봉'이었다. 지름 28mm의 철제 봉에 매달려 탄력을 만들어 위로 오르거나, 회전력을 이용한 철봉 동기 등이 혼합된 기계체조의 하나다.

떡갈나무로 만든 긴 막대기 2개를 나란히 잇대 놓은 '평행봉' 위에서 하는 '평행봉 체조'도 있다. 독일에서 고안된 이 체조는 매달리기, 오르기, 팔지지(支持), 팔 짚고 몸통 바로잡기 등 기본 자세로부터 흔들기, 돌기, 수평서기, 물구나무서기, 내리기 등 갖가지 화려한 기교를 구사한다.

'링' 체조는 공중에 매단 줄 아래 끝에 둥근 쇠고리를 달아 그에



건국체조(健國體操)

매달리거나 발을 끼워서 하는데, 그 모습이 날렵하고 아름답다. 처음에는 멈춰서 하는 운동이었지만 1950년대 이후 흔들기와 진동기(振動技) 등 힘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체조 종목으로 떠올랐다. 한때 크게 유행해 방앗간의 피대를 적당히 잘라 만든 '손목 보호대'를 보란 듯이 뒀머미에 차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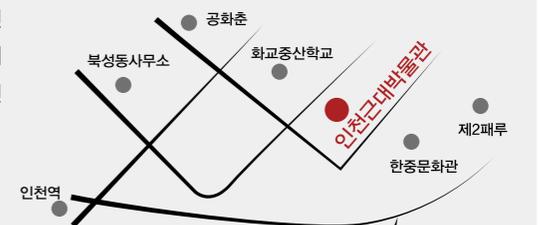
이밖에도 추억의 소품이 된 운동기구나 도구들도 있다. '홀라후프'가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자 그 바람이 우리나라에도 불어 홀라후프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였다. 온 가족이 엉덩이를 흔들어가며 운동에 열중했던 것은 1970년대만의 풍경이었다.

그와 함께 국가 최대의 체육행사였던 전국체전의 개막식 마스케임에 단골 프로그램으로 등장했던 곤봉체조도 기억에 아련하다. 흰 운동복을 산뜻하게 차려입은 여학생들이 절도있게 펼쳤던 멋진 곤봉체조에 응원 나온 같은 또래의 남학생들은 가슴을 설레기도 했었다.

그러나 뭉니 뭉니 해도 가장 사랑받는 운동기구는 저절로 알아만 있어도 운동이 된다는 무슨무슨 머신 같은 허황되고 값비싼 최신식 운동 보조기구가 아니다. 베스트셀러는 손에 익어 애착이 가는 원형적 운동기구들이다. 기능이 단순, 간편하고, 값도 저렴해 늘 곁에 두고 이용할 수 있는 줄넘기, 아령, 악력기(握力機), 역기 등이 아닐까 싶다.



별난 역사, 별난 물건 시리즈에 게재된 운동기구 관련 물건 및 사진은 중구 차이나타운에 있는 인천근대박물관(관장 최응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엔 희귀한 근대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료는 성인 2천원, 학생 1천원.
문의 764-1988



"쌍둥이가 복덩이에요"



우리는 지난 2월 21일 쌍둥이를 출산한 김옥주씨에게 출산장려금 400만원을 지급했다. 김씨는 다섯 살짜리 장녀에 이어 지난 1월 10일 둘째, 셋째 자녀를 동시에 출산하면서 총 400만원의 장려금을 받게 됐다. 또 김옥주씨의 가정은 첫째 자녀가 2007년생으로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지원하고 있는 만4세아 무상보육의 혜택도 함께 누리게 됐다. 우리는 올해부터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 100만원을, 셋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에는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둘째 자녀로 확대한 이후 첫 지급사례인 점을 감안해 담당 공무원이 김씨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장려금을 전달하고 축하했다.



시는 지난해 셋째 이후 자녀를 출산한 2천368명에게 각각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는 총 172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편성해 놓은 상태다. 시는 "자녀 출산·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등 친출산환경 조성 및 출산을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출산장려금은 2012년에 둘째이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으로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 중 출생신고일 6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예금통장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1년 미만 거주자는 1년이 지난 후 60일 이내에 신청) 문의 : 시 여성정책과 ☎ 440-2752

조명우 행정부시장 취임

조명우 신임 행정부시장이 지난 2월 16일 취임했다. 조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재정력과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지만 공직자들이 힘을 합치면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부시장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지난 1987년 인천시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총괄계장, 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서울시 인재개발원장, 서울시 서대문구 부구청장, 행안부 정보화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문의 : 시 총무과 ☎440-2011

스마트폰 '생활공감지도 서비스' 개시

우리는 지난달부터 웹과 스마트폰으로 목적지까지의 최저 도보 이용 경로와 버스·지하철 등 환승정보 등을 알려주는 '생활공감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는 '인허가 가능지역 진단',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공공서비스 안내지도', '뚜벅이 안전길 안내', '주민안전도우미', '새집찾기 길라잡이', '신장개업 알리미', '길따라 떠나는 여행' 등 세부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 안드로이드폰을 지원하며, 생활공감지도 인천 사이트(gmap.incheon.go.kr)와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설치할 수 있다.

문의 : 시 정보화통계담당관실 ☎440-2344

송도국제도시, 대중문화 촬영지로 급부상

송도국제도시가 공중파 TV 등에 연일 방송되어 대중문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송도컨벤시아, 트라이볼, 컴팩스마트시티 등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팝 스타(K-Pop Star)의 뮤직비디오는 물론, 공중파 버라이어티, CF 등 최신 촬영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18일 방영된 SBS 주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의 촬영도 송도국제도시에서 이뤄져 독특하고 세련된 영상연출이 가능한 송도국제도시가 큰 인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송도컨벤시아의 태백산맥을 형상화한 외관, 컴팩스마트시티의 정교한 인천도시계획모형, 트라이볼의 반셸(反-shell)구조의 독특한 외관과 전시행사 등이 TV에 자주 노출돼 내·외국인의 관광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인천도시공사 ☎260-5308

서해 5도 인구 실시간 파악한다

웅진군은 지난 2월부터 서해 5도 인구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동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해 5도 주민의 효율적인 대피·구호 대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돼 구축한 것으로, 도서관 운임지원 시스템, 여객선 승선권 발권 시스템과 연계해 서해 5도를 드나드는 관광객 등 일반인과 주민 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 웅진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인구만 가지고는 유사 시 서해 5도에 몇명이 남아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 웅진군청 ☎899-3923

올해 노인 일자리 1만5천개 생긴다

우리는 올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등 공공분야 사업에 1만 1천290명, 공동작업장 운영사업에 3천470명, 실버 카페테리아 등 자립형 분야에 240명 등 노인 1만5천명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 분야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던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립형 일자리를 발굴해 확대해 간다는 구상이다. 한편 구직을 희망하는 노인은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www.innojung.go.kr)와 각 군·구별 노인인력개발센터에 구직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 시 노인정책과 ☎440-2811

양육 부담 내리고, 혜택은 올리고

우리는 군·구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 어린이집의 과다 경비 청구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관내 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이나 현장학습 등 각종 행사비 명목으로 법정경비 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토록 부모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어린이집들이 보육료 지원에 따라 학부모 부담이 줄어든 상황을 악용, 불필요한 각종 경비를 청구할 경우 무상보육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법정 보육료와 필요 경비 수납한도액을 시·군·구 홈페이지와 반상회보를 통해 알리고 있다. 또 현장 점검과 학부모 신고 접수를 통해 부당 수령 금액은 부모에게 반환시킬 예정이며, 관련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또는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440-2899

국내 최초 짜장면박물관 오는 4월 개관

짜장면박물관이 오는 4월 우리시 중구에 문을 열 예정이다. 중구는 선린동 일대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옛 '공화춘' 건물에서 지난 1월 전시시설 설치 공사를 마쳤으며, 현재 본격적인 짜장면박물관 개관 준비에 착수했다. 중구는 사업비 65억원을 들여 국내 짜장면 원조집으로 추정되는 2층짜리 공화춘(등록문화재 제246호) 건물에서 짜장면을 테마로 한 박물관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구의 한 관계자는 "국내 짜장면의 발상지로 알려진 차이나타운에 박물관을 설치, 화교 등이 운영하는 주변 중국음식점과 연계해 관광객 유치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중구청 ☎760-7823

4·5세 유아 학비 전액 지원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4~5세 유아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와 농업인 가구, 다문화 가구의 3세 유아에 대해서도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5세 유아의 경우 국·공·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공립은 학비를 면제하는 동시에 월 3만원의 경비를 보태주고, 사립은 월 20만원을 지원해 준다. 1일 8시간 이상 유치원에 머무는 종일반에 다닐 때도 학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는 정부의 '5세 누리과정' 교육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한편 4세에 대한 지원은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교육복지사업이다. 문의 : 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 ☎420-8190

<p>남북협력사업에 20억원 지원</p> <p>우리시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월 8일 '2012년도 1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북측 영유아 및 임신부 등 취약계층 지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학생 체육교류사업, 고려역사문화 공동연구를 위한 사회문화교류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워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협력사업을 통해 서해상 남북 긴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한편 지난해에는 남북 공동 말라리아 방역사업, 서해평화협력 특별시대 구축사업, 남북 경협아카데미, 개성공단 입주업체 종교자전거 지원 등의 사업을 벌였다.</p> <p>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440-3243</p>	<p>테마파크형 외식 및 문화타운 송도에 들어선다</p> <p>내년 6월, 송도국제도시에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를 갖춘 대규모 테마파크형 외식 및 문화타운이 들어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2일 이종철 청장과 '애니원에프앤비 컨소시엄(크리스칼라 등 5개사로 구성, 위탁운영자 : CJ푸드빌)'의 대표사인 크리스칼라 정용한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테마파크형 외식 및 문화타운 조성에 관한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외식 및 문화타운이 들어설 자리는 송도동 10-39번지로 종전 판콘시티 부지이며, 컨소시엄은 총 사업비 190억원을 들여 오는 6월쯤 착공, 1년 뒤인 내년 6월쯤에 오픈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이곳에 푸드테마관, 식문화 체험관, 문화공연장 등을 조성하여 연중 축제와 이벤트를 통한 직장인, 가족, 젊은이 등 다양한 고객층을 끌어 모으는다는 계획이다.</p> <p>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322</p>
--	---

<p>구월보금자리주택,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으로 확정</p> <p>오는 5월 분양 예정인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공식적인 단지 명칭이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으로 확정됐다. 2014년 6월 준공예정인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 OCA 회원국 45개국 약 1만3천명 선수·임원들이 이용하게될 선수촌과 취재기자 등을 위한 미디어촌이 대회 기간동안 임시 사용될 예정이다.</p> <p>또한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에는 휘트니스 센터, 사우나, 야외공연장, 선수촌 식당(4천명 수용규모) 등의 편의·위락시설이 들어설고, 향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유산이 될 국기광장과 선수촌 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p> <p>문의 : 인천도시공사 ☎260-5673</p>	<p>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발족</p> <p>우리시는 지난 2월 22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위원장인 조명우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대표, 다문화가족 지원 유관기관 추천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방안 수립,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1월 현재 인천시 체류 외국인인 전체 인구의 2.5%인 6만9천 350명이며, 이 중 국제결혼을 한 결혼 이민자 수는 1만2천583명이다. 16개 시·도 중 체류 외국인 규모는 4위, 결혼 이민자 수는 3위에 해당한다.</p> <p>문의 : 시 여성정책과 ☎440-2867</p>
---	--

<p>청라국제도시, 서울 진입이 쉬워진다</p> <p>청라국제도시와 경인고속도로를 잇는 청라진입도로 기공식이 지난 2월 15일 열렸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1공구에 해당하는 이 구간은 총 길이 2.3km 규모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2014년 1월 개통할 예정이다.</p> <p>현재 청라국제도시에서 서울로 가려면 상습 정체구간인 가평오거리를 거쳐 서인천IC로 진입해야 하지만 청라진입도로가 완공되면 이 도로를 통해 곧바로 경인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은 현재 건설 추진 중인 청라국제도시~영종도 간 제3연륙교, 제2외곽순환도로와도 연결될 예정이다.</p> <p>문의 : 시 지역개발과 ☎440-4501</p>	<p>기술보증기금, 송도에 입주 예정</p> <p>기술·기업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의 중앙기술평가원 등이 이달 안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다.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센트로드 B동(2개층 3천570㎡)에 동지를 틀 중앙기술평가원 건물은 현재 막바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이며, 기술평가, 기술보증, 기술혁신 기업 인증 등과 관련한 석·박사 연구원 80여 명이 근무하게 된다.</p> <p>경제청의 관계자는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이 IFEZ에 입주함에 따라 IT기업, 벤처기업 등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동반 입주를 기대하고 있다"며, "송도국제도시의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투자 유치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문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33</p>
---	---

<p>인천도시공사, 고객 위한 SNS 운영</p> <p>인천도시공사는 고객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를 합쳐 새로 출범한 도시공사는 트위터(www.twitter.com/idtc5000)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idtc.kr)을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이벤트와 새로운 분양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p> <p>공사는 또 기존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카페(cafe.naver.com/goowall)와 연계해 고객과의 온라인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p> <p>문의 : 인천도시공사 ☎260-5066</p>	<p>강화군, 여행박람회 대상 수상</p> <p>강화군이 지난 1월 코엑스에서 열린 '2012 내나라 여행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강화군은 약썩을 재료로 한 차(茶)와 호두과자 시음·시식행사, 화문석 찌기 체험, 특산물 증정행사 등을 준비해 지역을 홍보했다. 강화군의 관계자는 "박람회장에서 강화군 홍보부스가 방문객들로부터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며, "강화군의 관광 자원인 자연과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p> <p>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지난 1월 12~15일 4일간 열린 이 박람회에는 전국 150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364개 기관이 참여했다.</p> <p>문의 : 강화군청 ☎930-3223</p>
---	---

<p>청소년상담전화 친절도 전국 1위</p> <p>우리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2011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청소년전화 1388 친절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 우리시는 전화응대, 상담내용, 서비스 처리 실적 등의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를 얻어 100점 만점에 99점을 기록, 전화 친절도 1위를 기록했다.</p> <p>시는 올해 중구와 남동구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추가로 설립해 총 9개의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쉽터 8곳, 인가형 대안학교, 자립생활관, 자활작업장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p> <p>문의 : 시 아동청소년과 ☎440-2854</p>	<p>인천지하철·공항철도 요금 150원 인상</p> <p>서울 지하철의 요금 인상과 맞물려 인천 지하철과 인천 공항철도의 기본구간 요금이 지난 2월 25일부터 150원 올랐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을 잇는 인천 공항철도 역시 기본요금(일반열차 10km 이내)이 9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버스요금의 경우 서울과 달리 우리시는 당분간 1천원 요금을 유지하게 된다. 이후 오는 6월 중 인천 버스요금도 100원이 올라 1천100원이 된다.</p> <p>문의 : 인천교통공사 ☎451-2114</p>
--	---



여기가 시장님 방이야?

웅성웅성, 조잘조잘~.

토요일 오후 인천시청 시장실이 학생들의 재잘거림으로 분주하다. 시장실을 둘러보는 아이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하다. TV에서만 보던 시장님도 옆집 아저씨마냥 푸근하고 가깝게 느껴진다. 우리시는 매월 네째주 토요일 학생들이 직접 시장실을 둘러볼 수 있는 '시장실 오픈데이'를 열고 있다. 이날 하루만큼은 아이들이 시장이 집무하는 곳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계획하고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게 시장실 문이 활짝 열린다.

시장실도 보고, 시장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장실 오픈데이'는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사랑 시장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시 총무과 ☎440-2504





‘영상문화산업도시 인천...’토론회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월 15일 15시 ‘영상문화 산업도시 인천의 현재와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다. 영상문화산업 발전·육성을 위한 인천의 영상산업 현재를 점검하고 인천영상위원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전영우 교수와 M&E 산업연구소 김도학 소장이 했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인천 영상문화산업 경쟁 환경에 대한 강점으로 영상미디어 클러스터 구성요인이 집중된 서울·경기도와 인접, 교통인프라, 다양한 풍광의 섬, 역사유적지 등 촬영가능 공간 풍부, 개항과 관문으로서의 이미지 등을, 약점으로 서울·경기와 인접으로 인한 독자성 부족, 영상문화 도시로서 이미지 및 이벤트 부재, 타 지역에 비해 영상산업 후발 주자, 인천의 정책적·재정적 지원 미비 등으로 분석했다.



인천항만공사 현장시찰

인천시의회는 산업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의원들과, 관계공무원 등이 찾아가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애로사항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인천항을 방문했다.

시의원들은 2월 16일에는 인천항만공사에서 인천항 발전전략 및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에 이어 인천내항 1-8부두, 인천항 갑문타워, 북항 동부 다목적 부두 현장을 시찰했다. 2월 17일에는 남항, 아암물류단지, 인천신항 건설현장 등을 차례로 돌고 항만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인천항 개발에 따른 당면 현안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이행 촉구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8일 열린 제198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에 시관계공무원인 정태욱 기획관리실장과 김진용 교육지원담당관을 출석시켜, 시장과 교육감의 협약사항을 계획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하였다.

교육위원들은 지난 2010년 10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교육관련 ‘4대 인천교육발전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재정의 어려움으로 시에서 중학교 2학년 학교운영지원비 36억원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시장이 인천시민에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하였다.

3월 개교학교 현장 방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월 15일~17일(금)까지 3일간 3월 개교 예정학교 4개교(명선초, 해원초, 해원중, 초은중)와 기숙형학교 3개교(강화교, 강화여교, 삼랑교)를 방문하여, 학생 수용상의 적정성, 시설공사 현황, 통학편의 등 개교 준비 상황과 강화 기숙사 입소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학교의 현안사항을 청취하였다.

준비상황을 청취한 교육위원들은 “학생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재점검하고, 청라지구의 경우 학교설립 민원이 많은바 향후 동일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설립 계획 준비 철저 및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과 “유치원, 특수학급에 대한 사전 홍보를 충실히 할 것”, “농어촌형 기숙형 학교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숙사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교육청 및 학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아라뱃길 주변 현장점검 실시

건설교통위원회는 아라뱃길 개통으로 현재 시설물 이관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결교량과 아라뱃길 개통후 주변지역 발전 방향 모색 차원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2월 1일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업무보고 후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로 이동하여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사업추진경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천교 등 6개 교량에 대하여 교량점검을 실시했다.

위원회들은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대부분의 교량이 기존 도로와의 고저차가 심하고 도로 구조가 불합리하여 사고 위험은 물론 제설작업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클릭! 시의원 _ 제갈원영 의원



“소외계층 대변, 나눔정치 하겠다”

사회적 나눔활동과 복지에 관심이 많은 제갈원영 의원(56, 연수구 제2선거구),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대변하겠다는 의지로 생활정치를 하고 있다.

제갈의원은 우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복지구현 차원에서 연수구 선학동 영구임대 아파트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영구임대 아파트가 6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걸어서 오르고 내려다니는 것이 늘 안타까웠기에 엘리베이터 설치로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해드리고자 시작했다.

연수구에 LPG충전소 설치도 건의하고 있다. 연수구 인구가 28만5천명인데 LPG충전소가 없어 남동구, 남구로 사람들이 가고 있어 연수구에 LPG충전소가 설치되면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제갈의원은 1년 8개월간의 건설교통위 활동을 하면서 가스차량 등록을 인천에서 하도록 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영유아 학대방지 조례안을 준비중에 있다.

제갈의원은 오는 7월 하반기 의회가 구성되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의정활동 펼치고 싶은 생각을 갖고있다. 자신이 영유아 보육, 출산 문제 등 복지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제갈의원은 초중고를 인천에서 마친 인천토박이이고 구도심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기억 때문에 차이나타운에 가면 마음이 푸근하다. 인천에 대한 사랑이 그의 몸속에 그대로 녹아있다. 그렇기에 그는 앞으로도 초심 그대로 원리원칙, 상식과 정의가 통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 활동을 최우선으로 삼는 의정활동에 모든 포커스를 맞출 계획이다.



시의회 금연운동 동참 선언

인천시의회회는 2월 13일 류수용 의장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금연문화 확산 및 사회적 금연분위기 조성에 공동 노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체결로 인천시의회회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금연관련 교육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인천광역시의회는 매년 증가하는 인천시의 흡연을 추세를 낮추고 범시민의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 의회차원에서 금연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인천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입법지원을 강화하고, 시의원 및 직원대상 금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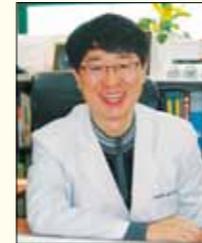
2012 친환경무상급식 차질없이 추진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 새해들어 첫 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도 운영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관계부서의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친환경 무상급식의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위는 군·구 의원 및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조례’시행에 따른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급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무상급식 현장을 방문하여 급식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는 등 특위 종료 시까지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마음까지 소통합니다

그림. 안중만



골반이 곧아야 美人

글. 황병천_인천시한의사회 부회장, 학익한의원 원장



겨울철 실내에서 오래 있으면 운동량이 부족해져 허리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거기에 나쁜 습관으로 인해 자세가 불량하게 되면 골반이 서서히 틀어지게 된다. 특히 오래 앉아있거나 오래 서있는 경우 근육의 좌우 균형이 깨지면서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며 골반의 변형이 시작된다.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골반이 틀어지기도 한다. 골반은 우리 신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골격으로 골반이 틀어지면, 그 위에 있는 허리뼈가 틀어지고 점점 위쪽으로 어깨, 목뼈 등이 틀어지게 된다. 따라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그쪽으로 근육과 인대, 힘줄에 무리가 누적되기 때문에 쉽게 허리통증이 생기거나 심하면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디스크로 진행되기도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골반의 변형은 외모에도 큰 영향을 준다. 골반이 비뚤어져 다리 길이에 차이가 나면 등과 어깨가 틀어져서 한쪽 가슴이 처지거나 짝짝이가 되기도 한다. 심지어 목

뼈가 틀어지면 그로 인해 안면근육의 좌우 균형이 틀어져 얼굴이 비뚤어지는 경우도 생긴다. 또한 골반이 틀어져 자궁을 압박하면 생리통과 같은 여성질환이 생기기 쉽고 혈액순환을 방해해 하체로만 지방이 쌓이는 하체비만 체형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산후에 벌어진 골반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엉덩이가 처지는 아줌마체형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조화가 깨지면 병이 발생한다고 하여 음양의 조화를 비롯한 신체의 균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골반이 틀어지면 그 위에 있는 모든 척추 뼈들이 틀어지고 그게 점점 계속되면 결국엔 무리가 쌓여서 퇴행성 질환(퇴행성관절염, 퇴행성 디스크) 급속도로 진행된다. 추나요법을 통해 틀어진 골반을 바로 잡는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스트레칭을 통해 몸이 틀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또 척추와 골반을 틀어지게 하는 나쁜 습관들을 고쳐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골반이 잘 틀어지는 사소한 동작

- 1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다닌다.
- 2 의자에 앉을 때 항상 다리를 꼬고 앉는다.
- 3 운전할 때 의자에 눌듯이 많이 기대고 운전한다.
- 4 책상에서 한쪽 턱을 괴고 오래 앉아 있다.
- 5 한쪽으로 누워서 TV 시청을 오래한다.
- 6 수면 중에 유난히 한쪽으로만 잠을 잔다.
- 7 일할 때 한쪽 방향으로만 주로 일한다.

골반이 틀어졌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 1 치마나 바지가 한쪽 방향으로 잘 돌아간다.
- 2 엉덩이가 처지거나 짝궁등이가 된다.
- 3 다리 한쪽이 짧아 걸을 때 뒤통거리 게 된다.
- 4 신발이 한쪽만 많이 닳거나 특정부위만 빨리 닳는다.
- 5 척추가 휘어지거나 요통, 견비통이 오래간다.
- 6 통증이 발생되면 주로 한쪽으로만 계속 아프다.
- 7 여성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이 오래간다.
- 8 O나 X자로 다리가 된다.



생활정보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인천시립박물관은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펼쳐지는 박물관 상설음 악회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을 3월 11일, 첫 공연 '봄을 노래하다' 를 시작으로 총 20회를 진행한다.

〈2012 공연일정표〉

날짜	분야	공연단체	공연주제
3월 11일	클래식	i-신모니에타	봄을 노래하다
3월 25일	타악	잼스틱	잼스틱의 즐거운 비명
4월 8일	퓨전국악	그룹 아나야	그룹아나야와 함께하는 '바람불어 좋은날'
4월 22일	아카펠라	아카펠라그룹엑시트	아카펠라그룹 엑시트의 Harmony concert
5월 13일	퓨전국악	에스닉 팝 그룹 프로젝트 樂	오감충족 '樂Concert'
5월 27일	타악	한울소리	유쾌한 드러머
6월 10일	아카펠라	MayTree	하나의 목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6월 24일	전통연희	전통연희단진치미당	인천설화창작연희 '인천 아리랑2'
7월 8일	안데스민속음악	KAWSAY	KAWSAY와 함께 떠나는 남미 안데스 음악여행
7월 22일	실내악	인천심포니 오케스트라	학교 가는 길
8월 12일	현악 앙상블	i-신모니에타	음악으로 들어보는 옛날 옛적 인천이야기
8월 26일	국악	월드뮤직밴드 'AUX'	AUX in 춘향
9월 9일	국악 실내악	국악실내악단 '흔'	국악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9월 23일	기타 클래식	리어석기타오케스트라	객석과 함께 연주하는 "나도 가수, 나도 연주자!"
10월 14일	사물놀이	광개토 사물놀이 예술단	Korea Mega Power 광개토
10월 28일	현악 합주단	인음첼비오케스트라	인음첼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이탈리아 여행
11월 11일	국악 실내악	인디국악밴드 '소름'	동서고금에서 남녀노소까지 "樂&樂 콘서트"
11월 25일	아시아민요	아리아시아	민요로 하나 되는 아시아
12월 9일	바순 앙상블	해피 바순	해피 바순앙상블
12월 23일	국악 실내악	가야금앙상블 '담은'	"동심의 봄"

‘소셜 미디어 영상PD 양성’ 취업 교육생 선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남구는 지역 미디어 영상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 해 ‘소셜 미디어 영상PD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 모집기간 : 3월 16일까지
- 대상 : 미디어, 영상회사에 취업하거나 관련분야 창업을 원하는 시민
- 강의료 : 무료(4~8월까지 식비, 교통비 등 실습비 지원)
- 교육과정 :
 - 실습위주로 기획 및 글쓰기 영상제작 기본
 -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교육
 - 미디어교육 전문 사회적기업인 '미디어교육연구소'와 협력하여 담임 강사 배치 맞춤형 교육
- 문의 : 872-2622

제41기 불학기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연수문화원은 불학기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

- 교육기간 : 3월 2일(금)~5월 24일(목), 3개월
- 접수기간 : 2월 16일(목) 10시부터 선착순 마감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연수문화원홈페이지(yeonsu.or.kr) ☞ 강좌신청
 - 연수문화포털사이트(call.yeonsu.go.kr) ☞ 연수문화원강좌
- 인터넷접수 대행시간 : (월~금)10:00~17:00 (토)10:00~12:00 (점심시간)12:00~13:00
- 교육내용 : 문화· 교양 / 음악· 전통예술 / 미술· 공예 / 어학
- 문 의 : 821-6229

역사가 살아 숨쉬는 탐방

연수문화원은 역사가 살아있는 탐방교실을 연다. 주제는 '경복궁과 종묘 탐방! 조선의 임금들은 어떻게 살아왔나'다. 조선의 건국배경과 그 시대 임금들의 삶과 죽음을 살펴볼 수 있는 탐방프로그램이다. 관심있는 시민 들의 참여를 바란다.

- 대상 : 성인
- 일시 : 5월 16일(수) 09:00~16:00
- 장소 : 경복궁과 종묘
- 참가비 : 2만원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연수문화원홈페이지(yeonsu.or.kr) ☞ 강좌신청
 - 연수문화포털사이트(call.yeonsu.go.kr) ☞ 연수문화원강좌
- 문의 : 821-6229

미래를 과학수사대 참가하세요

부평기적의도서관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산곡고등 학교 과학반 학생들과 함께하는 <미래를 과학수사대> 프로그램에 참가할 어린이를 모집한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과학 속 궁금증들을 하나씩 풀어 가며 생각을 쑥쑥 키우는 시간이 될 것이다.

- 프로그램명 : 미래를 과학수사대
- 참가대상 : 초등학교 2~4학년 25명
- 접수 : 3월 27일(화)10:00~4월 2일(월) 18:00(인터넷 접수 후 전자추첨)
- 발표 : 4월 3일(화) 18:00 홈페이지 내 공지
- 수업진행 : 4월~7월 매달 2주 (토) 10:00~12:00(매월 1회씩 총4회)
- 참가비 : 무료
- 장소 : 부평기적의도서관 공연장 어울림
- 기타사항 : 2011년 참여자는 접수 불가
- 문의 : 505-0612~3, www.bpml.or.kr

울목도서관 3월 문화예술 행사

울목도서관은 새 봄을 맞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향긋한 봄 냄새를 맡으며 재미있고, 유익한 문화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 2012년 상반기 문화프로그램 모집

• 운영기간 : 3월 6일(화) ~ 6월 1일(금)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대상	모집정원
성인동화구연 지도자 양성과정(초급)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25세 이상 성인	20명
책짱뽕 (몸으로 책을 느끼는 프로그램)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1~2학년 초등학생	10명
독서연극놀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30분	3~6학년 초등학생	15명
유아영어동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5~7세 유아	20명

- 운영장소 : 울목도서관 본관 2층 소극장 및 별관 2층
- 모집일시 : 3월 4일(일)까지
- 접수방법 : 프로그램별 정원 내 본관 1층 안내데스크 방문 및 전화
- 문의 : 770-3800, 3812

● 울목도서관 독서동아리 모집

• 운영기간 : 3월 1일(목) ~ 12월 28일(금)

동아리명	운영시간	모집정원	활동내용
성인 독서동아리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5명	월별로 선정한 도서를 읽고 자유로운 토론 및 독후활동 운영
청소년 독서동아리 (1~3학년 중학생)	매주 2,4주 금요일 오후 5시	10명	

• 운영장소 : 울목도서관 본관 소극장 및 동아리실
 • 접수방법 : 동아리별 정원 내 방문 또는 전화 접수(상시모집)
 • 문의 : 770-3810

노동·생활법률 무료상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인천상담소는 노동·생활법률 무료상담을 하고 있 다. 무료 상담이 필요한 분들의 신청을 바란다.

- 노동법관련 일체 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서류 작성 등 법률구조 서비스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고소, 고발 구제신청 상담
 - 산업재해, 최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대한 관련
 -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 일반 민사 / 형사 / 가사 등 생활법률 관련 상담 및 무료 서류 작성 등 법률구조 서비스
 - 부동산, 임대차, 채권, 채무, 이혼, 양육, 상속, 교통사고 등
- 시간 : 월 ~ 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주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539-1 주안공단본부 건물 2층
- 방법 : 전화, 팩스, 직접 방문 상담가능
- 문의 : 515-4881, 팩 스 516-4881
트위터 @ktlucsic (한국노총 인천상담소)

미추홀도서관 행사 참여하세요

미추홀도서관은 3월 시민들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재미있고, 다양한 문 화행사를 개최한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2012 상반기 정규강좌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3월 5일(월) ~ 6월 23일(토) ※ 프로그램별 상이
 - 운영대상 : 유아, 초등, 성인, 어르신 등
 - 모집기간 : 2월 21일(화) ~ 마감시까지 (선착순접수)
 - 장소 : 미추홀도서관 세미나실1~2(3층), 평생교육실(2층), 강당(지하1층), 컴퓨터교육실(3층)
 - 운영강좌 : 5개 부문 총16강좌
 - 유아프로그램 : 상상력이 자라는 그림교실, 영어동화여행, 엄마와 함께 책놀이(3강좌)
 - 초등프로그램 : 엄마와 아이 책으로 행복해지기, 동화책나라 연극놀이, 자신만만 스피치교실(3강좌)
 - 성인프로그램 : 엄마가 읽어주는 영어동화, 북아트속으로, 디지털이미지편집, 동화구연지도사과정, 숲해설가 아카데미, 북스타트자원활동기양성과정, 자녀독서지도(7강좌)
 - 어르신프로그램 : 어르신 기초생활영어회화(1강좌)
 - 토요일프로그램 : 토요일엔 독서터치, 자기주도학습코칭(2강좌)
- 책갈피 제작 및 배포
 - 일시 : 3월 12일(월) ~ 소진 시 까지
 - 장소 : 도서관 각 층별 안내데스크(1층 로비, 지하1층, 각 자료실)
 - 내용 : 휴관일 및 자료실 이용안내 등
 - 대상 : 전체
- 문의 : 440-6662~5

‘자연안내자 양성교육’ 제7기 전문과정

인천녹색연합은 생태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과 ‘자연안내자 양성교육-제7기 전문과정’을 진행한다. 나무 한 그루, 작은 벌레 한 마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나와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찾기에 나설 분, 내 삶의 초록을 만들어갈 분을 기다린다.

- 교육기간 : 3월 14일(수) 개강 ~ 7월 20일(금) 종강 예정
- 강의시간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 총50강, 150시간 이상 수료
 - 때에 따라 오전 오후 연달아 수업, 1박2일 수업 1~2회 있음
- 모집인원 : 참가비 선착순 25명
- 참가신청방법 : 홈페이지 참가신청서 작성 및 참가비 입금
- 교육내용 : 산림환경교육론, 산림과 생태계(야생동식물학 포함), 산림 과 인간환경윤리, 생태철학, 안전교육, 인간발달과 교육심리, 산림환경교육 교수학습방법, 교육프로그램 운영방법에 관한 실습 등
- 문의 : 548-6274

주택연금제도 이용해 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본인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거주하면서 종신까지 매달 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연금의 다양한 혜택, 이용자격을 소개한다.

● 주택연금의 혜택

- 평생동안 주택연금을 수혜
- 평생동안 내집에서 편안하게 거주
- 배우자도 평생동안 주택연금 보장
- 재산세의 25%가 감면

● 이용자격

-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 (독신인 경우도 가능)
- 부부 기준 1주택으로 9억원 이하 주택

● 인천지사 주택연금 상담 창구

- 담당자 : 구본혁 상담실장, 윤지혜 과장
- 연락처 : 441-2159, 2172
- 주소 :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6-9 용진빌딩 7층

연희청소년문화의집 문화행사

연희청소년문화의집은 3월 청소년 행사를 연다. 관심있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행사명	접수처 및 기간	내 용								
청소년 특성화 자치기구 모집	모집기간 : 3월 3일(화)~30일(금) 대상 : 14~24세 청소년 모집인원 : 자치기구별 15명 내외 접수처 :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접수방법 : 동아리 신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기간 : 3월~12월 <table border="1"> <thead> <tr> <th>자치기구명</th> <th>활동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생명존중 구호활동 [빈창고]</td> <td>유기건 보호 캠페인 미용, 목욕 등 봉사활동</td> </tr> <tr> <td>자연순환 정크아트 [상상공작소]</td> <td>재활용 전문교육, 재활용 공작활동, 박람회 및 공모전 참여</td> </tr> <tr> <td>그린희망봉사단 [자두]</td> <td>원도우메인팅 전문교육, 자격증 취득,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td> </tr> </tbody> </table>	자치기구명	활동내용	생명존중 구호활동 [빈창고]	유기건 보호 캠페인 미용, 목욕 등 봉사활동	자연순환 정크아트 [상상공작소]	재활용 전문교육, 재활용 공작활동, 박람회 및 공모전 참여	그린희망봉사단 [자두]	원도우메인팅 전문교육, 자격증 취득,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자치기구명	활동내용									
생명존중 구호활동 [빈창고]	유기건 보호 캠페인 미용, 목욕 등 봉사활동									
자연순환 정크아트 [상상공작소]	재활용 전문교육, 재활용 공작활동, 박람회 및 공모전 참여									
그린희망봉사단 [자두]	원도우메인팅 전문교육, 자격증 취득,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청소년 동아리 모집	모집기간 : 2012년 연중 대상 : 14~24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모든 동아리 접수처 :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접수방법 : 동아리 신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기간 : 2012년 연중 • 모집분야 : 댄스, 악기, 미술 등 다 분야 • 활동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교 청소년 우수동아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천 • 분야별 전문교육 • 관련대회 및 친조공연 정보제공 및 추천 • 동아리활동 확인서 및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 청소년 동아리 연합활동 								
국제성취 포상제 참가자 모집	모집기간 : 2월 29일(수)~3월 29일(금) 대상 : 만14~25세/10명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 접수 (lssug@korea.com) 접수처 :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연희동사무소 2층) 문의 : 561-556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간 : 연중 • 활동영역 : 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활동, 팀협활동 등 • 내용 : 동장, 은장, 금장 획득 •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포상인증서 및 휘장 수여 • 창의적체험활동 및 입학사정제 반영 • 참가비 : 60,000원 								

재활전문 공공의료기관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전국 6개 권역에 건립되고 있는 권역별재활병원 중 전국 최초로 인천시에 건립된 재활전문 공공의료기관이다.

뇌졸중, 뇌경색, 교통사고·산업재해 후유장애 등 급성기 치료 후 잔존 장애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고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여 장애를 최소화 시키는 것과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최대화시켜 조기에 사회에 복귀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주요시설 : 수중치료실, 스포츠재활치료실, 작업·인지재활치료실, 운동치료실, 소아재활치료실, 언어치료실, 온열통증치료실
- 의료진 : 최고 의료진과 50여 명 재활치료사가 수준높은 재활치료 제공
- 검사종목 : 스포츠재활클리닉, 통증클리닉, 발클리닉, 의지보조기 클리닉, 연하곤란 클리닉, 보행분석 검사, 등속성운동검사, 운동부하검사, 연하장애검사, 요류동태검사, 인지기능검사 등
- 사회봉사활동 : 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 대상 방문재활서비스,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사업, 무의촌 의료지원사업, 장애아동 돕기 바자회 행사개최 등
- 문 의 : 899-4595

“지역맞춤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인천시내 중소기업의 현장수요에 적합한 전문 직종을 개발, 훈련함으로써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에 힘쓰고자 고용노동부·인천광역시지원 바이오 품질관리원 양성과정 등의 8개 과정을 무료 운영한다.

- 문 의 : 469-1251, www.ywcaici.com

● 교육일정

교육과목	자격요건	일 정
금형설계 AUTO CAD 전문가 양성	초 대졸 이상 미취업 여성 및 남성 20명	4월 2일~6월 27일 월~금 9:30~13:30
중소기업 회계사무원 양성	미취업 여성 24명	3월 5일~5월 30일 월~금 14:00~18:00
중소기업 무역실무자 양성	초 대졸 이상관련학과 미취업여성 및 남성 24명	3월16일~5월 23일 월~금 9:30~13:30
중소기업 품질관리 담당자 양성	미취업여성 및 남성 20명	3월20일~5월2일 월~금 9:30~13:30
중소기업 관세사무원 양성	미취업 여성 24명	5월 7일~7월17일
ONC선반 기능인력 양성	미취업여성 및 남성 20명	6월 중
바이오 품질관리원 양성	초 대졸 이상 미취업 여성 및 남성 20명	4월 중
POB설계자 양성	미취업 여성 및 남성 15명	6월 중

청소년인천섬바다기자단 <파랑> 2기 모집

인천녹색연합은 2012 청소년 인천섬바다기자단 <파랑>2기 기자단원을 모집한다. 관심있는 청소년들의 지원바란다.

- 모집대상 : 인천, 경기 지역 고등학교 1-2학년생 총 30명
- 신청기간 : 3월19(월) 오후 6시까지
- 선발방법 : 자유글쓰기 서류 심사 후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
- 신청방법(인천녹색연합 홈페이지에서 참고)
 - 바다 혹은 섬과 관련하여 가장 인상 깊었던 자신의 경험과 느낌, 생각 등을 A4 1장 이내로 작성해서 이메일로 제출(분량엄수, 글쓰기 방식 자유)
 - 이메일로 글 제출 후 참가신청서 작성한 뒤 홈페이지에 신청완료 뱃글달기
 - 학교장 혹은 단체장 추천서가 있는 경우 가산점 제공
- 서류심사 발표예정일 : 3월 23일(금)
- 면접심사날짜 : 3월 24일(토) 오전 10시~오후 3시
- 최종발표예정일 : 3월 28일(수) 오후 4시 이후
- 혜택 : 우수참가자 명예기자상 수여 및 섬 취재 1회시 봉사활동 16시간 인정
- 문의 : 548-6274

꿈과 진로로 고민하는 청소년 '두드려라'

우리말 "두드림"은 "미래의 문을 두드리자"는 의미를 지닌다. 우리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취약계층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욕구에 부합된 종합적인 자립준비 지원을 위하여 자립동기 강화를 돕는다. 꿈과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소년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

- 기간 : 연중 내내
- 대상 청소년
 - 미래의 진로 및 취업 문제를 고민하는 청소년
 - 가정에서 보호 받지 못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
 - 만 15세 ~ 24세의 자립이 필요한 모든 청소년
- 주최 : 여성가족부
- 장소 : 인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4층 교육연수실 (15명 이상일 경우, 출장교육 가능)
- 내용
 - 자립동기화(교육 프로그램) : 전체 6회기 34모듈 총26시간 과정 (4일 진행)
 - 자립기술습득(체험 프로그램) : 직업체험, 실물경제체험, 진로종합캠프, 사회적응훈련
 - 사회진출도약(사회진출 지원) : 취업프로그램 연계, 직업훈련 연계, 자격취득 지원
- 신청방법 : 전화문의 후, 일정 안내
- 문의 : 721-2326, 2329

아이, 마이, 미, 마인(I, MY, ME, MINE)

인천광역시청소년진로지원센터는 청소년이 꿈을 찾고, 스스로 진로목표를 설정하여 진로탐색-설계-준비를 체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아이, 마이, 미, 마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모집대상 : 관내 중학교 4개교
- 신청인원 : 3학년 재학 청소년 40명
- 장소 : 신청학교 교실 외
- 참가비 : 1개교당 80만원(1인당 20,000원-직업체험비, 진행비 등)
- 진행일정
 - 4월(화·목·수·금) 2개교, 9월(화·목·수·금) 2개교
 - 여름방학 8월 중 4개교(오전, 오후)
 - 11월 중순에서 12월초 4개교
 - ※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 3월 10일(토)
- 접수방법 : 이메일(mippy-ran@hanmail.net), 팩스 762-1319
- 문의 : 762-5642

보육료, 양육수당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이제, 주민센터 방문없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자. www.bokjiro.go.kr 에 접속하여 온라인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없이 집에서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 온라인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
- 처리 내용을 바로 바로!
진행사항과 처리결과를 복지로 / 문자 /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 온라인신청서비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친절하게 안내한다.

인천에 대해 궁금할땐 언제나



- 전화상담 : 120(문자상담 032-120)
- 상담시간 : 365일 24시간

이달의 서평



통섭의 식탁

최재천 | 명진출판사 | 2011

우리 시대의 지식인 최재천 교수가 <과학자의 서재>에서 못다 한 '책 이야기'를 모아 엮은 책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취미 독서에만 빠져있는 젊은이들과 지적인 자극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획독서'를 제안한다. 21세기 통섭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지식을 아우르는 기획독서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자연과학, 인문, 사회분야를 아우르는 56권의 다양한 책 요리를 선보인다. 최재천 교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선별한 책을 코스 요리에 빗대어 설명했다.



모르는 여인들

신경숙 | 문학동네 | 2011

세계로부터 단절된 인물들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풍경들을 소통시키기 위한 순례기와 같은 일곱 편의 단편에 클래식 명곡이 더해져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각 이야기 속에서는 익명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려내는 풍경들이 펼쳐진다. 이 세계의 주변부를 떠도는, 잘나지도 독특하지도 않은 사람들.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을 사람들. 작가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눈에 띄지 않았던 존재들이 보내는 희미한 발신음을 포착해내고 그들을 향해 말을 건넨다. 그리고 그들이 현대인이 상실한 인간적인 체온과 연민을 지니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하루하루가 잔치로세

김영조 | 인물과사상사 | 2011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 <김영조의 민족문화 바로 알기>를 800여 회 연재 중인, <맛깔스런 우리 문화 속풀이 31가지>의 저자 김영조가 우리 절기와 명절문화를 통해 선조들의 365일을 재구성하였다. 24절기, 4대 명절, 삼복, 속절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과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이웃 간에 적선을 해 공을 쌓는 '입춘'에서 팔죽을 쑤어 먹는 '동지' 까지, 현대에도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풍속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왕가의 전인적 공부법

도현신 | 미다스북스 | 2011

조선의 왕실은 어떻게 노블레스오블리주를 뛰어 넘어 민주주의 정점에 설 수 있었을까? <원균과 이순신>, <한국사 악인 열전>의 저자 도현신이 조선 왕조 500년 장기집권의 비결을 왕가의 특별한 교육에서 찾았다. 세계적인 정치 리더 세종, 정조, 성종 등 수많은 현군을 탄생시킨 조선 왕실의 전인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탐색 하고, 서연을 통한 조선 왕자들의 학습 방법까지 살펴본다.

주제별 추천도서

자료제공 인천시 미추홀도서관 440-6655

서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통섭의 식탁	최재천	명진출판사	최재천 교수가 초대하는 풍성한 지식의 만찬
회복탄력성	김주환	위즈덤하우스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잊혀진 질문	차동엽	명진출판사	절망의 한복판에서 부르는 차동엽 신부의 생의 찬가
하루하루가 잔치로세	김영조	인물과사상사	우리 문화와 세시풍속으로 알아보는 365일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80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다이아몬드 교수의 전설적 명강의
동물을 먹는다 것에 대하여	조너선 사프란 포어	민음사	우리가 즐겨먹는 '육식'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밝히다!
우리말 소반다듬이	권오운	문학수첩	우리 소설을 망친 잘못된 문장과 단어 바로잡기
신문 속 언어지식	장진한	행담	저자가 각각의 말들이 현재의 의미를 갖게 된 이유를 추적하는 책
고전탐닉	허연	마음산책	삶의 질문에 답하는 동서양 명저 56
3096일	나타샤 캄푸쉬	은행나무	유괴 감금 노예생활 그리고 8년 만에 되찾은 자유
모르는 여인들	신경숙	문학동네	신경숙이 8년 만에 선보이는 여섯 번째 소설
왕가의 전인적 공부법	도현신	미다스북스	수많은 성군을 배출한 왕가의 전인적 교육비법을 밝힌다!

이달의 인천 향토작가

시인 엄한정



아동문학가이자 시인. 1936년 인천 출생으로 서라벌예술대학과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을 졸업했다. 1963년(아동문학)에 동시가 추천되어 문단에 등단하였으며, 1973년 <현대문학>에 시 <초춘 4수>가 추천되었다. 시 작품의 경향은 동양적인 서정성을 산뜻한 이미지로 표현하는 특색이 있다.



소중한 일자리, 행복한 일자리

본 정보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의 구인자료로, 조기에 채용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자는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 458-7488, 74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모집직종	인원	경력조건	학력	업무능력	근무지(주소)	임금액
파워씨키트(주)	재무 및 회계사무원	1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생산관리,외주 경력자 모집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602-33 404 호 인천 씨키트 단지내	연봉 2,700만원
(주)리오토	재무 및 회계사무원	1명	경력	학력무관	회계/사무직 경력사원 모집 (경력 3년 이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59(만수동)	연봉 3,000만원
(주)삼신기계	생산관리사무원(생산관리원 포함)	1명	경력	고졸~대졸(4년)	생산관리원 모집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3동 530-3	연봉 2,400만원
(주)삼원피씨비	전기·전자장비 캐드원	1명	관계없음	고졸~대졸(2~3년)	개발부(도면설계) 직원모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2~722	연봉 2,500만원
(주)세화공업	품질관리사무원(품질관리원 포함)	1명	경력	고졸~대졸(4년)	품질관리원 모집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428 남동공단 4블럭 7로트	연봉 2,600만원
(주)시큐러스	자가용운전원	1명	경력	고졸~대졸(2~3년)	부서장 자가용 운전자 모집 (서울 평창동-인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71-37 2층	월급 240만원
(주)아이차빙코리아	제품디자이너	1명	경력	대졸(2~3년)~대졸(4년)	화장품 디자인 경력자 모집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97-11 차빙B/D	연봉 2,400만원
(주)아크로만/본사	머시닝센터(MCT)조직원	5명	경력	학력무관	MCT 머시닝센터 조직원 모집	인천 부평구 청천동 423-2	연봉 2,400만원
(주)풍원테크	프레스기 및 절단기 조직원	1명	경력	학력무관	프레스 경력사원 모집(경력자우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서운동 610-7	연봉 2,400만원
(주)효진기공	범용선반조직원	1명	경력	학력무관	범용 선반 조직원 모집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493-1	월급 200만원
DSM	머시닝센터(MCT)조직원	1명	경력	학력무관	MCT기계조직원 모집 (경력 5년 이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630-3 43B-7L	연봉 3,000만원
대성에이비에스(주)	인력알선 및 파견 서비스 관리자	1명	관계없음	고졸~대졸(2~3년)	관리직 직원 모집합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046번길 10	월급 200만원
대한전기주식회사	자동화전기설비설계 기술자 및 연구원(계장기술자)	2명	경력	학력무관	전기 기술자 구인 *경력자 우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81-4	연봉 2,500만원
선경테크	연삭기 및 연마(광택)기 조직원	1명	경력	학력무관	센타레스 연마기 조직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12-22	월급 240만원
성일산업	프레스기 및 절단기 조직원	1명	경력	학력무관	모형절단 모집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12-1 148블럭 14로트	월급 233만원
이랜드체육산업(주)	목구조목공	1명	경력	학력무관	목공기술자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77-3	월급 200만원
이종신 재활의학과의원	물리치료사	1명	경력	대졸(2~3년)~대졸(4년)	물리치료사 구인합니다.	인천 남구 주안6동 1585-5	월급 200만원
주식회사일신	택배원	5명	관계없음	중졸~대졸(4년)	택배기사 모집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318	월급 200만원
진광하이캠	배송 및 납품 운전원(납품 영업 포함)	1명	경력	고졸~대졸(2~3년)	납품 영업사원 모집	인천 남동구 고잔동 308-16	연봉 2,500만원
파인로지스틱	트레이러운전원	3명	경력	학력무관	카캐리어 트레이러 장거리운전원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42-2 한진2보세창고	월급 250만원

☞ 인천시에서는 시민의 구인·구직을 돕기 위해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458-7470 ~ 7479, 7488, 7494(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 5번출구 50m 전방)



사)인천광역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
 cafe.daum.net/w2606

**장애인 그리고 가족분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마세요~
 좋은 사람들의 열린 공간 안에서 여러분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릴게요~**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인천광역시가 처음으로 설치, 위탁받아 운영하는 상담소로, 차별과 편견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예방, 근절을 위하여 장애인폭력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장애인특성에 맞는 상담지원활동
 폭력피해장애인 인권옹호 활동
 장애인 폭력 예방과 근절활동

상담시간 : 월~금 (오전 9시~6시)



| 지원내용 |

- **상담**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 가족상담, 가족해체 및 고통상담
- **의료** : 전문적인 치료와 증거물 채취를 위한 의료지원
- **수사·법률** : 경찰·검찰수사 의뢰 및 동행, 법률자문, 형사, 민사재판지원
- **사회복지** : 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제도 정보 제공, 장애인 재활, 피해자 시설연계
- **사후관리** : 사례관리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용천로 208번지 사회복지회관 707호
 전화 424-1366, 882-8369, 889-8369 팩스 429-1366

파이팅! 인천유나이티드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인천의 자랑 인천유나이티드를 함께 목청 높여 응원했지요.
 - 김선용 남동구 도림로

포즈가 예술
 봄 바람이 불면서 야외 활동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닷가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늘어납니다. 회원들이 영흥도 해변에 단합대회를 온 듯합니다. 좋은 구도를 담으려는 사진작가의 포즈가 '예술'입니다.
 - 하정훈 남구 학익동

소래산이 있어 행복합니다
 인천에 소래산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신선한 숲의 향기를 맡으며 천천히 정산에 올랐습니다.
 - 정인혜 연수구 새말로

아이들의 천국, 도담도담박물관
 인천에 장년김박물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도담도담박물관입니다. 회원에 등록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 채흥기 남동구 구월로

나리 나리 개나리
 내일이면 봄의 전령 개나리가 만발합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일까요. 꽃이 피서 봄이 온 것일까요. 서구에 있는 송학길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개나리 길일 것입니다. 올 봄도 송학길에서 개나리의 군무에 취해 보시지요.
 - 김종근 남구 학익동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인천 풍경에 대한 단상, 인천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원고지 1매 분량)을 보내 주세요.
- 칭찬하거나 알고 싶은 주변의 이웃을 사진과 함께 소개(원고지 1매)해 주세요

※ 채택된 분께는 문화상품권(1매,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보내실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문의 : 440-8305

Good Morning INCHEON 59/57



인천시립무용단
주최 1983.3.20에
개수 2018.12.27



춤추는 도시, 인천을 만든다

글. 손인영_인천시립무용단 예술감독

인천시립무용단의 예술감독으로 부임한 지 겨우 두 달이 되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기대를 안고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무용단에 출근한다. 안으로 문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밖으로는 시민의 고단한 삶에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인천시립무용단은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들을 준비 중이다. 인천문화예술회관에 시민의 발걸음이 잦아진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격식 차리고 앉아 문화를 즐길 여유와 시간이 없는 시민을 위해 무용단은 앞으로 도시 곳곳으로 찾아갈 것이다. 무조건 찾아가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의의를 가지고 양질의 예술을 배포하려고 한다.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서도 거창하게 무대를 꾸미고 격식을 갖추기보다 시민과 무용단의 거리감을 없애면서 가깝게 다가가려고 시도 중이다.

사람들은 축제를 좋아한다. 그것은 웅성거리는 에너지이며 거칠고 피폐해지는 삶에 활기를 주는 긍정의 힘이다.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무표정하게 전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선물하기 위해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흥겨운 춤으로 다가갈 것이다. 또 산업역군으로 젊은 시절 일만하며 세월을 보낸 어르신들의 청춘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더불어 춤추며 문화를 체험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을의 이야기들을 발굴해 이야기와 테마가 있는 즉흥춤을 기획하고,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을 순례하는 닥종이 인형춤을 보여드리려고 한다.

도시가 피곤함으로 찌들어서는 안 된다. 긍정의 에너지를 돌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이 나서야 한다. 쓰러져가는 도시의 뒷

골목을 정화시키기 위해 불도저로 밀어 버리기보다 예술가들을 득실거리게 하면 뒷골목은 자연스럽게 문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질척거리고 버려진 공간에도 높은 건물과 스레기하나 없는 깔끔한 도시의 거리만큼이나 예술적인 향기는 배어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문화연구가들과 예술인들이 이 향기를 만들어야 한다. 버릴 것들을 가지고 아이디어로 예술품을 만드는 것, 그것은 예술가의 힘이며 사람의 창의력이 일구어 내는 것이다. 춤추는 도시-인천은 쪽쪽 뻗은 발전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 냄새나는 어수룩함 속에서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에 인천시립무용단은 앞으로 뒤로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문화를 주도할 것이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작가가 글을 쓰는 이유는 의혹과 번뇌 때문이야. 늘 자신과 세상에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거지, 그 자신이 가치롭다는 것을 말야. 만약 내가 천재라는 걸 확신하게 된다면, 글을 뭐하러 쓰겠어? 이유가 도대체 없잖아”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79년 작 영화 <스토커> 중에 나온 대사.

창작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품을 창조하는 인고의 과정을 거친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그 수많은 갈등의 순간에 나는 타르코프스키의 이 말을 떠올린다.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증명하기 위해 고민하고 번뇌를 하는 것이라고... 작품을 끝나고 나면 늘 아쉬움과 불편함이 자리한다.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나는 또 도전한다.



만선滿船, 이 손 끝에 있소이다

봄은 바다에서 시작한다. 바닷바람에 봄기운이 실려 오자 포구도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덩달아 그물을 손질하는 손길도 바빠졌다. 춤춤하게 꿰매진 그물코는 만선을 꿈꾸게 한다. 만선의 척후병을 자처하는 갈매기도 오랜만에 힘찬 날갯짓을 하며 슬슬 몸을 풀어본다. 이제 머지않아 북성포구는 주꾸미, 꽃게, 뱀뱀이 등 바다 먹거리를 육지로 쏟아낼 것이다.

글·사진. 유동현_본지편집장